

석사학위 청구논문

관광지화에 따른 읍성취락
공간구조의 변화

-제주도 성읍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송 성 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김 영 철

2000년 8월

관광지화에 따른 음성취락 공간구조의 변화

-제주도 성읍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송 성 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제출자 김 영 철

김영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초록>

관광지화에 따른 읍성취락 공간구조의 변화

- 제주도 성읍리를 중심으로 -

김영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송성대

성읍리는 약 5세기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였던 유서 깊은 곳이며, 제주도민의 과거 생활사가 내재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장소이다. 제주도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제주읍성의 형태와 민가양식은 물론 다양한 유·무형의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남아있어 교육적·홍보적 가치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화에 따른 읍성취락 공간구조의 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취락의 입지배경과 행정구역의 변천을 살펴보고, 민속마을 지정 이전의 취락의 경제기반과 가옥의 분포 및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취락의 공간구성을 살펴본다. 둘째로, 성읍리 관광자원의 분포와 관광자원의 유형분류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특성을 구명하며, 셋째로, 읍성에 적용되는 취락의 공간구조를 고찰하여 그 결과 민속마을 지정 이후에 관광업소의 출현 및 확산으로 공간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구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에 의존하며, 둘째 각종 지도 및 기록을 통하여 분석하고, 셋째 현재의 마을 공간구조에 대한 의문을 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밝히며, 넷째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한다.

성읍리는 성읍민속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 및 농업지역이다.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이 흐르고 있으며, 중산간 지역 중 비교적 물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작은 오름들에 의해 둘러싸인 분지로 비교적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

완만한 경사지와 겨울철의 탁월풍을 막아주는 제주도 최대의 기생화산군으로 분포된 지역이며 동계방목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목축이 성하였다. 주변의 완만한 대지를 활용한 밭농사에 주력하여, 민속마을 지정 이전 주민들의 주된 생계수단은 농사가 위주이면서 축산업을 겸하고 있었다.

자급자족의 경제시대에 중산간지대는 산지와 해안의 이중적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영농할 수 있는 경지정리와 농경에 이용되는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경제생활의 최적지였다. 삼읍체 설치 당시 정의현의 읍성은 현재의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하였는데 현청이 정의현의 전체

에서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행정의 중심지역으로는 적당하지 않아 백성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성읍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여러 마을 가운데 성읍리로 현청 소재지가 옮겨진 데에는 성읍이 지니는 풍수지리적 요소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취락 구성면으로 본 특색은 관아가 집중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민가들이 모여 전체적인 읍취락을 이루며, 가옥의 밀도가 높은 집촌의 형태를 이룬다

성읍리는 기존에 형성된 마을에다가 성읍민속마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관광지로 형성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처에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문화적 대상은 빈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서민의 생활 기반인 민속문화를 비롯하여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풍부히 지니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형·무형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있다.

오늘날 성읍리 주민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 및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교통로는 경관의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관광관련업소들은 마을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각종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성곽 남쪽 남문외곽에는 관광업소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인구정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소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그 분포는 주로 성곽 밖 남쪽과 북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관광 승마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에 들어서 활발히 증가하였다

이 지역의 관광업소들은 성읍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관광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설규모, 메뉴의 다양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성읍리의 현재의 모습은 완벽한 조선시대의 재현도 아니고, 현대식 시설도 아닌 중간적 위치에 놓여있다. 또한 관광객의 기호에 알맞은 지방의 특산물에 해당하는 상품의 개발생산도 미흡한 실정이다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된 북쪽 문화마을은 주택의 외모가 지나친 육지적 또는 도시적 요소로 인하여 이곳 민속마을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못하여 외래 관광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게 한다. 전통마을의 분위기에 조화되면서 어울리는 건축양식과 다양한 토산품의 개발생산은 앞으로 이 지역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는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동향	2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II. 민속마을 지정 이전 취락의 입지요인과 경제기반	10
1. 취락형성의 지리적 기반	10
2. 취락의 입지배경과 행정구역의 변천	17
3. 취락의 경제기반	26
4. 취락의 공간구성	32
III. 관광자원의 분포와 특성	40
1. 관광자원의 분포	40
2. 관광자원의 특성	43
IV. 관광업소의 공간구조	52
1. 취락의 공간구조	52
2. 관광업소의 출현	59
3. 관광업소의 확산	62
V. 결론	79
참고문헌	82
Summary	87

표 목 차

표 1. 지역별 기상현황	11
표 2. 지역별 현상일수	12
표 3. 인구현황	15
표 4. 인구수의 변화 추이	15
표 5. 성읍1리 토지현황	27
표 6. 성읍1리 소득현황	28
표 7. 성읍1리 영농현황	29
표 8. 성읍1리 가축사육현황	30
표 9. 민가 현황(1979년 말)	32
표 10. 관광자원 현황	41
표 11. 관광토산품 제조업체 현황	76
표 12. 제주도 승마장 현황	77
표 13. 성읍리 관광승마장 현황	77

그림 목 차

그림 1. 성읍리의 위치	10
그림 2. 성읍리 주변의 지형과 도로망	13
그림 3. 성읍1리 인구수 및 가구 수의 변화 추이	16
그림 4. 성읍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추이	16
그림 5. <興地圖>에 나오는 정의현 지도	22
그림 6. <大東興地圖>에 의한 도내 교통	24
그림 7. 감굴원 및 가옥분포(1982년 지형도)	34
그림 8. 제주도 민가 배치도	36
그림 9. 감굴원 및 가옥분포(1998년 지형도)	38
그림 10. 성읍리 관광자원 분포도	42
그림 11. 성읍리의 공간구조	55

그림 12. <耽羅巡歷圖>	58
그림 13. 제주도 관광객 내도현황(1980~1999)	60
그림 14. 성읍리 도로망	61
그림 15. 1980년 이전 관광업소 분포	63
그림 16. 1981-85년 관광업소 분포	65
그림 17. 1986-90년 관광업소 분포	67
그림 18. 1991-95년 관광업소 분포	69
그림 19. 2000년 4월 현재 관광업소 분포	71
그림 20. 음식점 증가추이	73
그림 21. 특산물판매점 증가추이	74
그림 22. 토산품판매점 증가추이	75
그림 23. 승마장 분포	78

I. 서론

1. 연구목적

한 지역의 특성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며, 일단 형성된 지역은 외부 및 내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지역에는 자연현상에서 인문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가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들 요소들은 그 지역의 속성과 직접 및 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을 고찰해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는 투수성이 큰 화산지형으로 말미암아 용천수의 대부분이 해안에 분포되어 있고, 취락이 해안선을 돌아가며 대부분 형성되어 있어 해안에서 8.8km나 산간으로 올라간 성읍리와 같은 마을은 드문 편이다.

성읍리는 1423년 이후 약 500여 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로서 유서 깊은 곳이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과거생활사가 내재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기념적, 상징적 장소로서 제주도의 전통적 생활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 전통취락으로서의 지역적 정체성(identity)이 강한 지역이며, 우리나라의 4개 마을(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마을, 전남 승주군 낙안면 성내마을,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마을,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마을)과 함께 중요민속자료 보호구역이다. 이곳은 제주도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제주 읍성의 형태와 민가양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유·무형의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1984년 6월 7일에는 이 마을 1,425필지 965,000평에 대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어, 대외적으로 교육적·홍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읍리에 대하여 먼저, 민속마을 지정 이전의 취락의 입지배경과 경제적 기반을 고찰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이 지역의 관광자원의 분포를 유형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속마을 지정 이후에 이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증가하고 그와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나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에 관광업소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한 공간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동향

국내 지리학계에서 촌락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후이다.¹⁾

姜大玄의 “한강 범람원취락의 특질”²⁾은 한국지리학계의 최초의 촌락연구로서, 범람원의 지형적 특색, 취락의 분포형태, 홍수에 의한 취락의 변천과 취락의 기능 및 토지이용의 양상이 변해가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柳濟憲은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³⁾에서 여주·이천지방에서 나타나는 농촌경관의 형태를 기술하고, 경관형태에 미친 요인과 그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촌락 및 경지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집촌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별 과정을 추구하고 집촌형성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楊普景의 “반월면 4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⁴⁾는 동족부락을 사례로 가

1) 崔基燁(1986), “韓國村落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p.20.

2) 姜大玄(1966), “漢江氾濫原 聚落의 特質,” 「地理學」, 제2호, 大韓地理學會, pp.14~26

3) 柳濟憲(1979),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 「地理學論叢」, 제6호, 서울大學校, pp.96~115.

4) 楊普景(1980), “반월면4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地理學論叢」, 제7호, 서울大學校, pp.29~52.

옥의 확산과 경지의 확대, 경지소유 및 경작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족부락이 성립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취락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동족촌(同族村)을 그 역사적 형성과정 속에서 추구한 연구로서, 촌락의 기원과 확산과정을 밝히고 있다.

崔永俊은 “영남로의 경관변화,”⁵⁾에서 교통로의 입지를 변화시키는 자연적·문화적 요인을 분석하며, 조선왕조시대 교통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중앙과 각 지방의 양반취락을 직접 연결하는 행정통신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南宮燧은 “동진강하구 간척촌에 관한 연구,”⁶⁾에서 김제군 광활면 간척촌을 대상으로 취락 발달론과 취락 형태론적 입장에서 지역공간상에 형성된 경관을 대상으로 발달단계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공간상에 형성된 경관상의 특징을 밝혀 지역성을 구명하고 있다.

金德鉉은 “씨족부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문화경관,”⁷⁾에서 안동지방의 사대부 씨족의 거주지 이동과 씨족촌락의 입지 및 경관특징을 고찰하였다. 여기서 유교와 관련하여 문화집단의 거주지 형성, 촌락의 문화경관 형성의 특징을 고찰하면서 문화공간 형성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李文鐘은 “동족촌의 인구이동과 촌락의 변모,”⁸⁾에서 충청남도 청양군 북면 신흥리를 사례로 인구이동의 형태나 과정, 그리고 인구이동이 촌락의 변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경제활동 연령층인 청장년 층의 과도한 결손은 이촌 향도(離村向都)의 연령선택성이 남긴 흔적이며, 이러한 청장년층의 결손이 상대적으로 농촌인구의 노약화와 출산의 위축을 초래하여 폐촌화의 위기에까지 유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 崔永俊(1983), “嶺南路의 景觀變化,” 「地理學」, 제28호, 대한지리학회, pp.1~15.
6) 南宮燧(1983), “동진강하구 간척촌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제10호, 서울대학교, pp.197~212.
7) 金德鉉(1983),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 文化景觀,” 「地理學論叢」, 제10호, 서울대학교, pp.241~251.
8) 李文鐘(1984), “同族村의 人口移動과 村落의 變貌,” 「地理學」, 제30호, 대한지리학회, pp.77~87.

朴鍾叙는 “한국 사하촌(寺下村)의 구조와 변모,”⁹⁾에서 변모해 가는 사하촌의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 내지 촌락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상업 및 관광서비스 구조의 사하촌은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관광인구의 증가와 교통발달에 따라 대부분이 집단시설로 지구화하여 도시적 구조로 변해가고 있으며,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높고 유동인구도 많으며 전체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도시지역의 인구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丁源一은 “경주시 숙박업의 공간적 유형과 개발,”¹⁰⁾에서 경주시 숙박업의 공간적 특징과 그 유형을 각 지구별로 살펴보고, 그것의 개발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주시 숙박 단지를 세 지구로 나누어서 특성을 기술하며, 숙박업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자들로서 교통요인, 정책적 결정에 따른 인위적인 개발요인, 관광자원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영철은 “한국 관광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¹¹⁾에서 관광지리학의 연구논문들을 주제별, 시기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발표지별 변화과정과 유형별 특징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국내의 연구활동이 관광을 통하여 지역의 성격이나 공간 질서 등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학술적 연구와 심층적인 분석 결과가 미흡하며, 또한 폭넓은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 진행되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관광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활동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민속마을에 관한 연구로서는 강동진의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¹²⁾가 있다. 여기에서는 양동마을의 변천과정을 해석하고 마을에

9) 朴鍾叙(1988), “韓國 寺下村의 構造와 變貌,” 「地理學叢」, 제16호, 경희대학교, pp.11~52.

10) 丁源一(1994), “慶州市 宿泊業의 空間的 類型과 개발,” 「地理學叢」, 제21·22호, 경희대학교, pp.73~87.

11) 문영철(1997), “한국 관광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3권 제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pp.89~103.

12) 강동진(1997),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재된 보전논리와 개발·보존에 내재된 갈등의 경향 및 정도를 파악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전방법론을 도출하고 있다.

전통지리사상에 대한 연구로서 최창조·박영한의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¹³⁾이 있다. 여기에서는 村山智順의 「朝鮮의風水」를 요약 정리하여 풍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풍수의 기본사상에 내포된 토지관을 취락입지론과 대비하여 고찰하면서, 풍수라는 전통적인 토지관이 자연환경과 결부되어 어떠한 공간질서를 성립시키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토지관을 이루어 왔던 풍수지리사상의 합리적인 부분을 지리학적 접근으로 밝히고 있다.

제주도에 관한 취락연구로서는 吳洪哲을 들 수가 있는데, 그의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¹⁴⁾는 제주도 취락의 발달과정을 입지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역사의 추이에 따른 취락입지의 변동상을 구명하고 있다. 그는 취락입지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취락의 입지요인으로서 자연적, 사회적 요인을 지표로 삼아 입지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제주도의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¹⁵⁾에서 제주도의 취락을 성립과 발달, 형태, 입지, 기능 등에서 고찰하고, 제주도에 분포된 취락의 지리학적 특성과 제주도의 지역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제주도의 취락이 중세 말에서 근세초기까지 해양으로 침입하는 왜구와 개척을 위한 정책적 방향, 인구의 증가 등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생활 중심권의 내륙이동을 조장하였고 그 결과 행정구획의 증설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또한 중산간 지대는 외침이나 내란 등에도 안전지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중효과를 올릴 수 있는 관계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근세의 중핵취락이 되었으며, 현대에 이행되면서 입해지역에 환상도로의 개통으로 생활

13) 崔昌祚·朴英漢(1978),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陽氣風水를 中心으로-,” 「地理學」, 제17호, 대한지리학회, pp.21~39.

14) 吳洪哲(1969), “濟州島의 聚落地에 關한 研究,” 「地理學」, 제4호, 大韓地理學會, pp.41~54.

15) 吳洪哲(1974), “濟州島의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慶熙大學校 대학원.

공간의 중심축이 해안으로 이행되었다고 하였다.

張保雄은 “한국의 민가형 분포와 문화지역구분,”¹⁶⁾에서 민가의 특징을 구명하고, 지역적 특색을 밝히면서, 제주도에 분포하는 3실형민가의 평면구성 요소와 그 기능 및 제주도 민가의 대지의 특색을 고찰하고 있다.

읍성취락에 관한 연구로서 李琦錫의 “舊邑 취락에 관한 연구,”¹⁷⁾가 있다. 여기에서 읍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구명하고, 구읍(舊邑)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 파악하여, 조선말엽 이후 교통의 발달에 따라 근대 교통로에서 소외된 읍지역은 군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의 이전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또한 1914년의 전국적인 군 통합은 구읍(舊邑)형성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읍취락 쇠퇴의 원인은 한국의 지방중심취락이 행정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의 교통요지에 발달한 취락이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대변천에 따른 교통의 발달과 행정관청의 이전이 취락의 중심세력권을 이동시키고 취락의 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자원에 대한 연구로서는 송성대의 “관광자원분포성향에 의한 제주도의 지역별 관광성,”¹⁸⁾이 있다. 여기에서 제주도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의 특성과 분포성향 및 관광공간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 전체의 관광성은 해안입지의 유람형이 되며 관광지 형성은 거의 자연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읍리에 관한 연구로서는 金榮敦의 「정의고을」¹⁹⁾이 있다. 이는 문화재관리국의 의뢰에 의하여 조사, 보고했던 것으로 성읍리의 역사, 현청 소재지로서의 시설·유물, 민간신앙과 전승문화, 성읍리의 생업과 경제, 주민

16) 張保雄(1980), “韓國의 民家型分布와 文化地域區分,” 「地理學」, 제22호, 대한지리학회, pp.41~55.

17) 李琦錫(1968), “舊邑 聚落에 關한 研究-京畿地方을 중심으로-,” 「地理學」, 제3권, 제1호, 大韓地理學會, pp.31~44.

18) 송성대(1984), “觀光資源分布性向에 의한 濟州島의 地域別 觀光性,”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집, 제주대학교, pp.523~549.

19) 金榮敦(1973), 「旌義고을」, 민속자료보호구역조사보고서, 제55호.

의 의식구조, 가족구조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徐庚林은 “제주 민속의 관광자원화 방안,”²⁰⁾에서 인문자원인 민속에 대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의의를 고찰하고 성읍리를 중심으로 민속촌으로서의 조성방법을 모색하였다.

김홍식의 “성읍리 공간구성의 연구,”²¹⁾는 마을 및 가옥의 공간구성을 고찰하고, 가옥의 평면구성의 특징과 가옥의 배치방법을 밝히며, 풍수지리상의 해석과 함께 마을의 공간구성에 일정한 기하학적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박현숙은 “제주민속마을의 관광현상,”²²⁾에서 성읍리를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관광매력으로 삼는 관광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관광지주민사회>의 관광현상을 관광체계의 분석 틀을 이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성읍리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하나이며 500여 년 간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였다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에 II장에서는 성읍리의 취락형성의 지리적 기반 및 제주의 행정구역이 조선초기에 세 고을로 개편되는 과정과 정의현의 읍성이 이동한 이유를 구명한다. 이를 위하여 성읍리의 풍수지리상의 해석과 자연 지리적 기반 및 읍성의 입지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다. 그리고 조선초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읍리의 행

20) 徐庚林(1979), “濟州 民俗의 觀光資源化 方案-表善面 城邑里를 中心으로-,” 「논문집」, 제10집, pp.709~730. 제주대학교.

21) 김홍식(1984), “城邑里 空間構成의 研究,” 「濟州島研究」, 제1집, 濟州島研究會.

22) 朴賢淑(1992), “濟州民俗마을의 觀光現像,” 「濟州島研究」, 제9집, 濟州島研究會, pp.129~180.

정구역의 변천과정을 고찰해본다. 1980년 4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 농업 및 목축업을 중심으로 성읍리의 경제기반을 살펴본다. 그리고 관광지화에 따라 가옥의 분포와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민속마을 지정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취락의 공간구성을 살펴본다.

성읍리는 유형, 무형의 많은 문화유산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옛 마을 형태의 민속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는 곳이다. 이에 III장에서는 성읍리의 관광자원을 조사분류하고, 분포를 지도화하여 관광자원의 특성을 열거한다. IV장에서는 먼저 성곽을 중심으로 읍성에 적용되는 취락의 공간구조를 살펴보고 민속마을 지정 이후에 관광업소의 출현 및 확산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구명한다. 본 논문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관광업소의 공간적 분포와 확산과정을 통하여 관광지화 이후에 공간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위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읍성취락 성읍리의 지리적 특성을 요약하며, 이 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성읍리는 1961년 이후 성읍1리와 2리로 나누어졌으며, 성읍리의 인구는 1999년 말 현재 532가구에 1667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다. 성읍2리는 1리에서 3km나 올라간 곳의 「구렁팻(구룡동)」과 축산단지가 있는 「안밭(안보동)」을 합친 행정구역이지만 1999년 말 현재 84가구에 인구 261명에 불과하므로 성읍리라면 당연히 성읍1리가 주축이 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성읍리는 성읍1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서 첫째, 문헌조사에서는 취락의 발생과 현재에 도달된 변화의 자취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사정을 기술한 <耽羅志>, <耽羅巡歷圖>, <世宗實錄地理志> 등의 옛 기록을 검토하고, 선행 연구논문과 학술지 등을 검토하여 성읍리의 입지요인과 학문적 성과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1:25,000지형도 및 1:5,000지형도(1982, 1991, 1995,

1998년)와 지적도를 이용하여 취락의 규모 및 형태를 분석하고, 토지이용과 가옥분포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999년 12월부터 4월말까지 5달에 걸쳐 현지조사를 행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남제주의 문화유적」을 기초자료로 관광자원의 분포를 조사하고, 「성읍리 관내 전화번호부」 및 남제주군 보건소 위생계의 「성읍리 위생업소 현황」을 토대로 관광업소의 실태 및 분포를 관찰조사하고, 업소의 출현시기를 현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고, 보완 수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세종 5년(1423년)에 성산읍 고성리에서 표선면 성읍리로 정의현의 행정관아가 이전한 원인을 전통적 개념인 풍수사상에 의한 입지요인을 포함하여 지리적,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고찰하며, 행정관아와 성곽으로 이루어진 읍성에 적용되는 공간구조를 파악하였다. 성읍리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포를 지도화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관찰과 조사 및 면담을 통해 정리한 시기별 관광업소의 출현 및 확산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객관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구명하기 위해 관광업소의 출현을 1980년 이전~2000년 4월까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1단계는 문헌연구에 의존하며, 2단계는 각종 지도 및 기록을 통해 분석을 하고, 3단계로 현재의 마을 공간구조에 대한 의문을 현지 조사와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밝히며, 4단계는 민속마을 지정 이후 관광지화에 따른 성읍리 관광업소의 변화 정도가 가장 심한 시기를 밝혔다.

Ⅱ. 민속마을 지정 이전 취락의 입지요인과 경제기반

1. 취락형성의 지리적 기반

성읍리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제주도 전체로 볼 때 남동부 지방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내륙에 위치한다. 제주시로부터는 남동쪽으로 34km, 동쪽의 성산포(24km)와 서쪽의 서귀포(36km) 사이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 48′ 북위 33° 23′ 이 된다.

<그림 1> 성읍리의 위치



북으로는 남·북군의 경계를 두고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와 접하며, 동

으로 성산읍 삼달리(5km)와 신평리(6km), 난산리(7km), 남으로는 표선면 세화리(7km), 남서쪽으로 표선면 가시리(4km)와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제주군 표선면에 속해 있는데 1961년 이후 성읍1·2리로 분할되었으며, 1·2리를 합쳐서 약 57km²의 면적이다. 성읍1리는 동상동, 동하동, 서상동, 서하동, 서동의 5개 동에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성읍리의 기후는 한라산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심하나, 해양성 기후의 특성으로 겨울철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발 125m지점에 위치하는 중산간 마을로서 해안지대보다는 기온이 낮은 편이다.

성읍리가 속해있는 성산포 기상관측소의 과거 30년 간(1961~1990) 연평균 기온은 15.2℃로서 서울보다는 3.4℃가 높은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서울 1,369.8mm보다 월등히 많은 1,799mm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최다 강수지역에 속한다. 여름철에는 한라산에 의한 지형성 강수가 빈번하여 천미천의 범람으로 인한 역류현상으로 성읍리의 일부지역은 침수피해를 입기도 한다. 하계집중형의 특징을 보이거나 겨울철에도 비교적 많은 강수현상을 나타낸다.

<표 1> 지역별 기상현황(1961~1990)

구 분	평균기온 (℃)	상대습도 (%)	평균풍속 (m/s)	강수량 (mm)	증발량 (mm)	일조시간 (h)
제 주	15.3	74	4.1	1423.6	1317.7	1935.5
서귀포	15.9	72	3.4	1771.4	1294.7	2068.8
대 정	15.3	74	4.3	1239.2	1287.2	2536.4
성산포	15.2	77	3.0	1799.1	1165.7	2230.6

자료 : 제주기상대(1993), 「제주도 기후 요약」.

과거 30년 간(1961~1990)을 연평균하면 맑은 날 76일, 흐린 날 129일, 강수 123일, 서리 30일, 얼음 40일로 나타나 맑은 날이 적고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일기가 불순하며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강한 편이다.

약간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북서풍이 그대로 넘어와 차갑게 느껴지며, 제주도보다 눈이 많고 얼음일수도 많다.

<표 2> 지역별 현상일수(1961~1990)

(단위 : 일)

구분	맑음일수	흐림일수	서리일수	얼음일수	안개일수	강수일수
제주	48.9	157.7	10.7	24.0	13.6	135.7
서귀포	66.5	125.7	6.1	29.5	18.0	127.8
대정	64.3	150.2	9.3	30.1	18.6	119.7
성산포	76.5	129.1	30.7	40.3	13.0	1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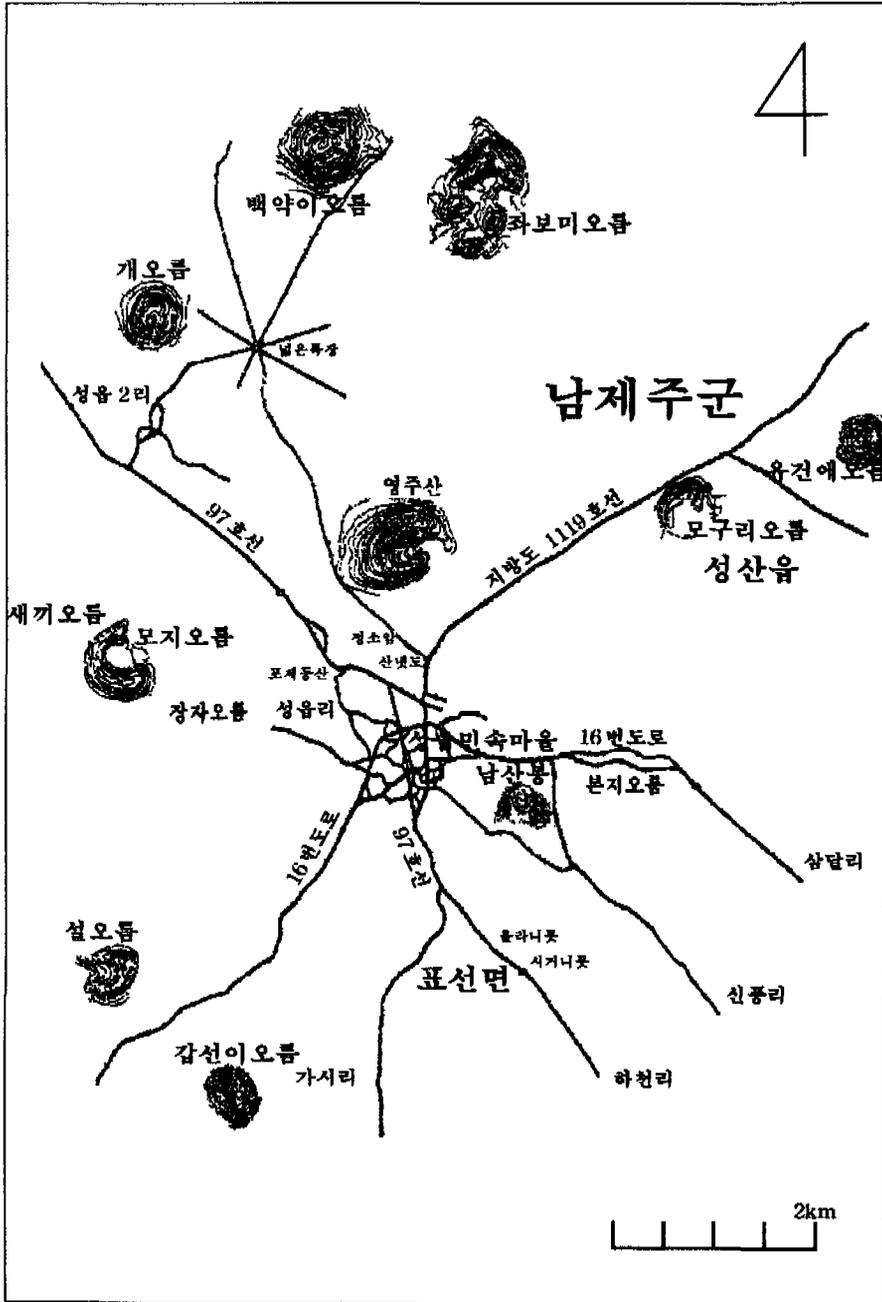
자료 : 제주기상대(1993), 「제주도 기후 요람」.

성읍리는 현무암으로 덮여 있으며 그 위에 1m내외의 표층이 있다. 토양은 투수성이 강하여 경작지가 극히 제한되고 나무도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잘 맞는 삼나무가 들어오면서 방풍림으로 많이 이용되어 마을의 경관을 바꾸고 있다.

성읍리 지역의 지표는 화산활동과 관련되고, 화산활동이 있을 때마다 토해내는 화산분출물이 퇴적되어 이 지역의 성격을 나타내는 구성물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와 미사질양토로 되어있으며, 일부가 하천의 범람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종을 이루는 미사질 양토의 표토는 흑색, 황갈색, 또는 암적갈색의 세사토로서 배수는 양호하나 염기포화도가 높아 객토를 하여 발작물의 재배 또는 집약 초지로서 이용할 수 있다.²³⁾

23) 남제주군(1994), 「城邑民俗마을 綜合整備計劃」, p.18.

<그림 2> 성읍리 주변의 지형과 도로망



자료 . 제주도청 건설과(2000년 5월)

해발 326m의 영주산은 성읍리로부터 북쪽으로 1.2km, 해발 306m의 모지오름은 서쪽으로 2.7km, 해발 215m의 장자오름은 2.3km 떨어져 있다. 그리고 해발 172m의 남산봉이 남동쪽으로 0.5km 떨어져 있어 주변의 오름으로서는 가장 가깝다. 성읍리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발 200~300m의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에 들어서면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오름으로 둘러싸인 분지상의 지리적 범위는 직경 3~4km 내외가 된다.

마을의 북서쪽으로부터 천미천이 영주산과의 사이를 통과하여 동쪽으로 흘러 남쪽 바다로 빠지고 있다. 이 하천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흐르지 않는 건천이지만 지하수 개발 이전에는 이것이 유일한 상수원이었다.²⁴⁾

성읍리는 중산간지대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용천수가 전혀 없으며, 천미천은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이며 동부지역을 흐르는 유일한 하천이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없다. 하천의 폭과 깊이가 좁고 얕으며, 하천 바닥이 대부분 요철이 심한 암석으로 되어있어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며, 특히 7~9월에는 큰비를 동반하는 태풍의 내습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으로 성읍리의 저지대에 위치한 가옥들의 침수가 잦다.

천미천은 엄밀한 의미에서 건천(우기 때를 빼면)이지만 곳곳에 크고 작은 소(沼)들이 즐비하여, 건천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다.

성읍리의 인구는 1999년 12월말 현재 448가구에 1,406명으로 표선면 전체의 12.5%에 해당하며, 성별구성비는 남자 691명(49.1%), 여자 715명(50.9%)으로 여자가 약간 많은 편이다.

24) 제주도(1980), 「城邑民俗마을 保存 및 育成基本計劃」, p.14

<표 3> 인구현황(1999년 12월 말)

구분	세대(가구)	인구(명)			성비	가구당 인구수
		계	남	여		
제주도	173,612	539,493	267,723	271,770	98.5	3.1
남제주군	24,794	78,205	39,088	39,117	99.9	3.2
표선면	3,636	11,279	5,598	5,681	98.5	3.1
성읍1리	448	1,406	691	715	96.6	3.1
성읍2리	84	261	127	134	94.8	3.1

자료 : 남제주군(2000.1), 주민등록 인구통계

1981년~1999년 사이의 성읍리 총 인구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연평균 감소율 0.11%로 표선면 인구감소율 0.57%보다는 적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에는 표선면의 다른 마을과는 달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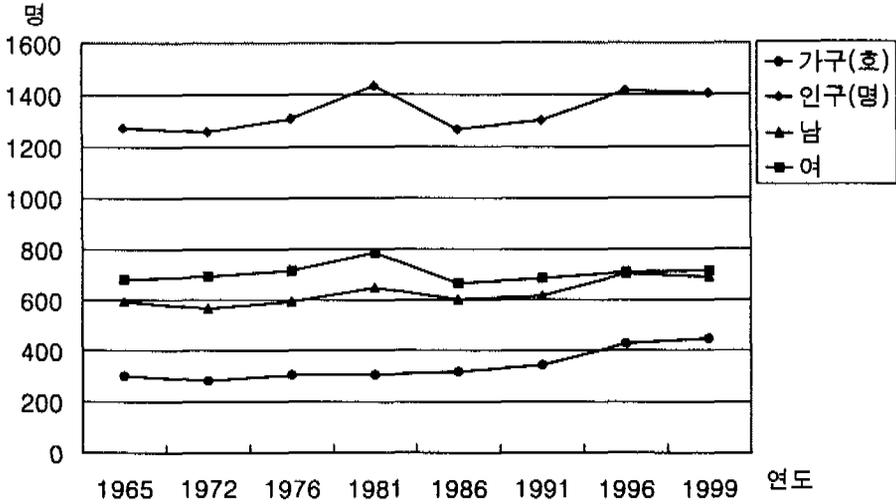
<표 4> 인구수의 변화 추이

구분	1981	1987	1993	1999	연평균증가율(단위 : %)			
					81-87	87-93	93-99	1981-1999
제주도	467,876	502,534	511,019	539,493	1.23	0.28	0.93	0.85
남제주군	94,826	87,906	82,394	78,205	-1.22	-1.05	-0.85	-0.97
표선면	12,572	11,717	11,426	11,279	-1.13	-0.41	-0.21	-0.57
성읍1리	1,435	1,232	1,326	1,406	-2.36	1.27	1.01	-0.11
성읍2리	295	225	269	261	-3.95	3.26	-0.50	-0.64

자료 : 남제주군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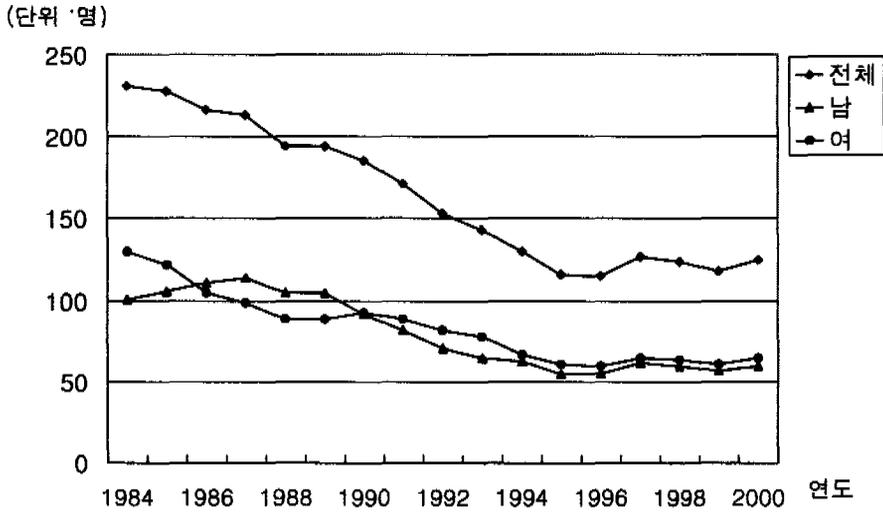
<그림 3>에서 성읍리의 인구는 1965년에 1,274명(가구 수 300호)에서 1999년 12월 현재 1,406명(가구 수 448호)으로 인구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가구 수는 148호 정도 늘었으며, 가구 당 3.1명으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1995년 이후 성읍초등학교 학생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민속마을이 있는 성읍리는 관광업소 경영 및 종사로 다른 중산간 마을과는 달리 인구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성읍1리 인구수 및 가구 수의 변화 추이(1965~1999)



자료: 남제주군 「통계연보」.

<그림 4> 성읍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추이



자료: 성읍초등학교.

2. 취락의 입지배경과 행정구역의 변천

1) 취락의 지리적 입지배경

자급자족 경제시대에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는 해안지방에서 해산물, 산간지방에서 임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산지와 해안의 이중적 경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영농할 수 있는 경지정리와 농경에 이용되는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거주지였다. 해안의 경우에는 어업을 사회적으로 천시하는 풍습과 함께 해산물은 자가소비의 생산으로 충족되어 재산증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더욱이 고려 말의 몽골(元)의 침입,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친 왜구의 약탈로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였기에,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던 왜구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서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산간 지대는 일종의 은둔적 성격도 띄고 있었다.

물이 부족한 화산지형에서는 음료수를 얻는 문제가 취락입지를 결정한다. 도내 모든 곳의 지반은 암반 때문에 샘의 굴착이 불가능해서 음료수로서 적당한 물을 얻기가 어렵다. 성읍리에는 한라산의 중북에서 발원하여 영주산 서쪽을 경유하여 흐르다가 마을에 이르러 크게 곡류하는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은 마을 남쪽으로 흘러 신천리 해안 하구로 빠지는데, 경사도가 완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때에는 물이 넘쳐흘러 마을을 범람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비가 그친 후라도 건천 바닥의 움푹한 곳(pit-hole)에 물이 일정 기간 고여있어, 이 지역의 용수 공급처로 활용되기도 하여 제주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물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

천미천 이외에 성읍리에는 수량이 풍부한 샘이 없고, 마을 몇 군데에 조성된 봉천수가 있을 뿐이다. 봉천수는 천연우수의 총칭으로 암반이나 점토층의 오목한 곳에 담겨진 물을 이용하는 원시적인 음료수이나 그것마저도 삼투성이 큰 화산암의 지형 및 지질적 조건에 의하여 국지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성안에는 물론이고 성 밖에도 두 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이 중의 하나인 ‘올라니못’은 당시 주민들의 식수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도 이 지역의 농업 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에는 울타리나무에 의해 물을 모으는 방법으로 침물[添水]이 있었다. 물을 모으는 방법은 상록활엽수종을 가옥의 주변에 심고 비가 내릴 때에 나무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을 간단한 시설을 통하여 항아리로 유도 집중시켰다. 나무의 종류는 동백나무와 비파나무가 가장 많고 녹나무, 대나무 등도 있는데, 물을 모으는 데는 동백나무가 가장 뛰어났다. 또한 부산물로서 기름을 얻을 수 있어 동백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다.²⁵⁾ 봉천수 및 각종 인공음료수의 공동시설에 의하여 침물은 소멸되었지만 성읍리에는 지금도 침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성읍리가 위치한 제주도 남동부지역은 제주도 남북사면과는 달리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며, 주변지역의 해발고도는 125m내외이다. 작은 오름들에 의해 둘러싸인 분지로 비교적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오름들이 바람(편북풍)의 피해를 막아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인근에 넓은 목초지를 가진 가장 큰 관설목장인 천미장(川尾場)이 위치하고 있어 농경과 목축을 병행할 수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2) 풍수지리로 본 입지요인

고려 이래 역사상 우리 문화의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풍수지리사상은 한민족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토지관이다.²⁶⁾ 우리 선조들은 자연은 영적인 호흡인 기(氣)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면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순천사상(順天思想)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선조들의 사상이 풍수지리라는 지리학적 사고로 성숙·발전되어 전통적

25) 梶田一二, 「濟州島の地理的研究」, 翻譯·出版 제주시우당도서관(1995), p.126.

26) 崔昌祚·朴英漢(1978), 전계서, p.21.

으로 마을을 구성하는 근본이 되었다.²⁷⁾

풍수사상에 있어서 양택(陽宅)에 관한 기본원리는 좋은 물을 얻는 것과 겨울철의 한랭한 북서풍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지형을 택하는 일이다. 물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산의 정수(精髓)를 얻는 것이며, 그 정수의 근원은 가장 이상적인 취락터로 알려져 왔다. 명당이라 일컫는 지점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 안에 위치하며, 북·서쪽의 산은 높고, 남·동쪽은 대체로 낮아서,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온난 다습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을 막지 않는다. 명당은 작은 하천에 의하여 배수되는 넓고 평평한 들을 전면 에 두되, 명당이 외부세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낮은 산으로 가려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취락들은 대체로 이러한 작은 분지 지형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관아는 진산(鎭山) 밑의 양지바른 산록에 위치하였다.²⁸⁾

읍성의 입지적 측면에서 읍성의 위치는 진산을 뒤에 끼고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가 웅위하는 형국에 앞쪽으로 수계를 끼고 있는 형국을 주로 택 한다. 여러 정의현의 마을 가운데 표고 125m에 이르는 중산간 마을인 성읍리로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가 옮겨진 데에는 성읍리가 지니는 풍수지리적 요소도 다분히 작용하였을 것이다.

성읍리의 형국은 한라산을 조산으로 하고, 북쪽의 영주산을 진산(鎭山)으로, 남산봉을 안산(案山)으로 하며, 영주산의 서쪽으로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설오름, 감선이오름으로 연결되는 우백호가 되고, 동쪽은 남산봉 밖으로 좌청룡이 연결된다.

풍수상으로 읍성의 주위에는 항상 하천에 흐르고 있어야 하고, 성 주위를 흐르는 하천은 성밖으로 반달형의 모양으로 흘러야 길지(吉地)라고 한다. 성읍리에는 천피천어 반월형으로 흐르고 그 반월의 안쪽에 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산봉 남쪽으로 수구가 열려 있다.

27) 강동진(1997), 전계서, p.108.

28) 崔永俊(1983), 전계서, p.13.

이 마을의 형국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천미천을 중심으로 배형국[行舟形]이라는 해석과 북서쪽으로부터의 맥을 중심으로 장군대좌형(將軍大座形)이라는 해석이 그것이다.

마을이 강이나 냇물을 끼고 있을 때 그 마을이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흔히 배형국[行舟形]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읍리 역시 여름 장마철에는 남동쪽으로부터 물이 넘쳐 한 두 번씩 마을이 물에 잠기곤 한다. 마을을 배형국[行舟形]으로 볼 때는 주위에 키와 닳을 상징하는 산이나 오름이 있게 마련인데, 이 마을의 상징적 뱃머리는 북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닳은 남산봉에 해당하고, 키는 이곳 산자락에 자리한다. 마을의 오래된 큰 나무가 돛대역할을 하며, 남산봉을 배의 고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국에서 우물을 파는 행위는 배 밑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여 금기시하였다. 같은 이유로 마을 안에는 일체의 우물이 없으며 다만 봉천수에 의지한다(마을 중심에 예전에는 현감만 마셨다는 '남문못' 일명 원님물통이 있으나 이 역시 봉천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라산의 맥을 중심으로 장군대좌형이라는 해석은 장군이 마주보고 앉은 모양처럼 전후좌우 대칭형 지세를 말한다. 양쪽에서 큰 봉우리가 마주보고 각각 양 날개를 드리워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방어상 대단히 유리한 곳이다. 성곽의 서쪽은 한라산의 맥을 받아서 내려온 모지오름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영주산, 본지오름, 남산봉으로 연결되고 오른쪽에는 설오름, 갑선오름, 아심선으로 연결되는 맥을 가져서 이것이 마치 장막처럼 성곽을 멀리서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예부터 풍수지리설에서는 전화(戰火)를 입지 않는 땅[兵火不入之地]이라고 불러왔으며, 여기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굽이쳐 반달형으로 흐르는 곳은 지대가 평지이기 때문에 읍성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풍수 지리적으로 이 고을을 해석하면 행주형(行舟形)이나 장군대좌형(將軍大座形) 모두 서쪽을 머리[坐]로 해서 동으로 향하며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의 맥도 서쪽으로 입수하고 있다.²⁹⁾

3) 역사적 배경

제주도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였으며 반도부에서 떨어진 섬이므로 고려 말까지는 외적의 침입이 별로 없이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그러나 고려 말에 원이 침입하고 여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왜구의 약탈이 심하여 사회가 불안하였다.³⁰⁾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빈번하였던 왜구는 취락입지의 내륙이동을 촉진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내륙입지는 해안과 산지의 접이지대로 농·목업이 발달하고 자급적 경제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근세사회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역의 중심취락이 형성되었다.³¹⁾

근세사회에 들어와 제주도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개척이 진전되고 취락이 발달하여 갔는데, 방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구의 지방분산은 불가피하였다. 더구나, 제주 읍성과 멀리 떨어진 남제주 지방은 관민간의 연락지연으로 그 병폐가 심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산남지방(남제주)의 개척촉진을 위해서 1416년(태종 16)에 제주 안무사 오식(吳湜)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구역의 변경과 군현을 증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라산의 남사면 일대 고근산을 경계로 동서를 분할하고 동부에 정의현, 서부에 대정현을 설치하여 현감으로 하여금 통치케 하였다.³²⁾ 이로써 제주의 행정구역은 한 고을에서 세 고을로 개편되어 삼읍체제가 형성되었다.

삼읍체제 설치 당시 정의현의 읍성은 오늘날의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산남과의 거리는 80~90리가 넘고, 또 가장 가까운 진사리와도 거의 30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읍성은 정의현의 전체에서 행정의 중심지역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현청을 성산읍 고성리에서 성읍리로 옮긴 이유를 <太宗實錄> 17년(1417년) 5월 甲辰條(19일)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29) 김홍식(1984), 전계서, pp.227~228.

30) 李惠源(1994), “濟州道の聚落名에 關한 地理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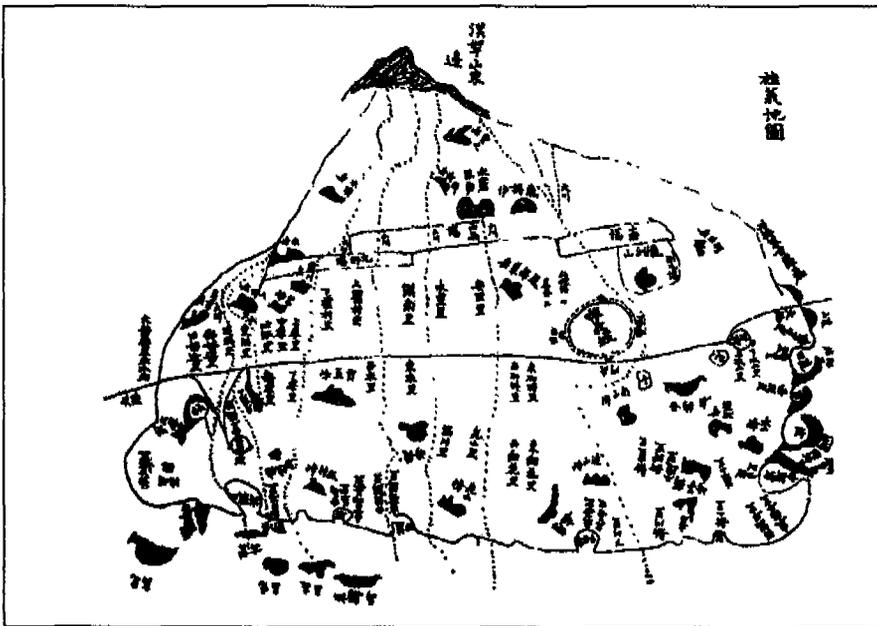
31) 吳洪哲(1974), 전계서, p.101.

32) 吳洪哲(1969), 전계서, p.45.

밝히고 있다.

「전라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제주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정의현감 李貽의 문文에 의하면 旌義를 本邑으로 삼는 일은 일찍이 教旨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 곳에 畝屬한 4현이 한라산 남쪽에 연달아 배치되어 있으므 로 만약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는다면 狐兒縣, 洪爐縣은 서로 거리가 3息 (약 90리)이 넘습니다. 그곳 백성은 왕래, 公事支待와 목장고찰 등의 일에 폐단이 실로 적지 아니하니 마땅히 정의 땅[旌義地] 중앙인 西村, 胥舍, 兎山 땅 중에서 地利가 적당할 만한 곳에 읍성을 배치하고, 만약에 방어할 경우라면 현감은 順風인 때 군대를 이끌고 旌義鎭에 이르러 固守防禦하게 하십시오.’ 하니, 이에 따랐다.

<그림 5> <輿地圖>에 나오는 정의현 지도



자료 · 제주도(1980),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 p.16.

안무사 정간(鄭幹)의 건의에 따라 성읍리의 중심 마을인 진사리로 현청을 옮기고 마을이름도 성읍리로 개칭하였다.

세종 5년(1423)에 안무사 정간(鄭幹)의 건의로 읍성을 성읍으로 이전할 당시 성의 둘레는 2,986척, 높이 13척으로 성의 동, 서, 남 3곳에 문을 두고 우물 2개소를 만들었다. 숙종 28년(1702) 이형상 목사(李衡祥牧使)의 <耽羅巡歷圖>에 의하면 당시 민가가 1,436호, 전답이 140결, 성 수비군이 664명, 말 1,178필, 흑우 228수를 보유한 상당히 번성한 읍성이었다.³³⁾

내륙지방으로 새롭게 이전된 현읍(縣邑)은 해안에서 8.8km 거리에 위치하여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내륙도가 크고, 관설목장인 천미장에 근접하여 지형상으로 광활한 평탄지가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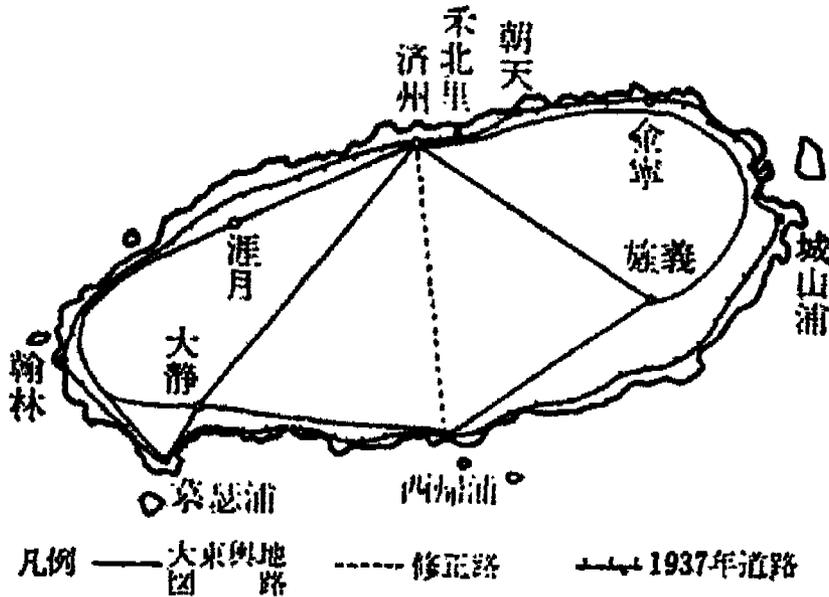
내륙지방에 군현통치의 중심지인 읍성의 신설은 개척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삼읍이 삼각형의 관도로 연결되고, 연도에 취락이 성립됨으로써, 읍성을 연결하는 관도의 개통은 취락입지의 내륙이동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삼읍체제는 한말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1914년에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500여 년 간이나 유지되었다.

1917년 해안지방을 관통하는 환상의 일주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임해취락은 교통이 편리함 이외에 행정의 중심지화, 산업발달, 고용증대에 의한 내륙취락의 하향이동을 가져와 면소재지마저 이전하였다. 이처럼 시대의 변천에 따른 교통의 발달과 행정관청의 이전은 취락의 중심 세력권을 이동시키고 취락의 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3) 文化財管理局(1997), 「'95年度 文化財修理報告書(下卷)」, p.1030.

34) 吳洪哲(1969), 전계서, p.45.

<그림 6> <大東輿地圖>에 의한 도내 교통



자료 : 泉靖一(1966), 「濟州島」, 洪性穆 역(1999), 우당도서관, p.138.

4) 행정구역의 변천

조선조의 지방행정제도는 대체로 1413년(태종 13년)의 개혁이 있는 뒤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법규는 <經國大典>의 기록이 요강을 이루는데,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4府, 4大都護府, 20牧, 43都護府, 82郡, 175縣을 둔 형태였다.³⁵⁾

태종 16년(1416)에는 한라산 분수령을 경계로 산북을 제주라 하여 목사를 두고 산남을 양분하여 동쪽은 정의현, 서쪽은 대정현의 두 현을 설치하면서 본 지역은 정의현에 소속되었으며, 당시에 현청은 성산읍 고성리에 두고 현감이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고성리의 현청이 위치상으로 본읍(濟州縣)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인접된 우도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여

35) 최창조(1990),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p.260.

1423년(세종 5년) 안무사 정간(鄭幹)의 건의로 현청을 진사리(현 성읍리)로 옮겼다.

광해군 원년(1609) 동서방리제 설정으로 정의현 중면에 속하였다가 그 후 행정상의 불편으로 동중면, 서중면으로 분할함에 따라 정의현의 동중면에 속하였다.³⁶⁾

1864년(고종 원년) 8월에는 정의현과 대정현을 승격하고 군제(郡制)를 실시하여 군수를 두었는가 하면, 제주목의 관할 밑에서 벗어나 직접 전라도 관찰사의 지배체제 아래에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정의현, 대정현에 변방군수를 두고 보니, 제주도의 특이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목과 양 군간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행정상의 곤란으로 인해, 1880년(고종 17년) 2월에는 양 군을 다시 현으로 고치고 옛 그대로 현감을 두게 되었다.

1895년(고종 32년)에는 제주목을 부(府)로 개편하며 관찰사와 참사관을 두고 경무청을 신설하는 한편 정의, 대정에는 군수를 두면서 8도제 당시의 전라도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06년(광무 10년)에는 1896년(고종 33년)에 부활했던 목사제도를 폐지하여 군수를 두었으며, 1914년 3월에 이르러서는 대정, 정의 2군을 없애고 제주군에 통합하여 제주군 동중면으로 개칭하였다.

1915년 5월 1일을 기하여 제주군 제도가 폐지되고 島制가 실시되어, 정의고을이었던 성읍은 오늘날의 표선면 면소재지로 전락하였다. 도제 실시 당시의 면사무소는 제주, 애월, 명월, 대정, 서광, 홍로, 중문, 외귀, 정의, 고성, 평대, 조천 등 조선의 관도가 통하는 제주도의 중핵적 촌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1917년 도민의 4년 간 부역에 의한 일주 환상도로의 개통으로 면사무소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음료수 구득이 용이하며 제조업이 발달된 해안취락으로 이전됨에 따라 생활권의 중심축은 원심적 이동이 이루어졌다.³⁷⁾ 그리하여 옛 현읍인 정의가 중심취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36)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1995), 「(下川里 郷土誌) 냇끼」, p.36.

하였다.

1935년 전라남도 승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동중면을 표선면으로 개칭하고 면소재지를 성읍리에서 표선리 596-1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46년에는 郡制가 실시되어 남제주군 표선면에 속하게 되었다.³⁸⁾ 1981년 4월 18일 면사무소를 표선리 703번지로 신축 이설하였다.³⁹⁾

1961년이후 성읍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졌으며, 성읍1리는 동상동·동하동·서상동·서하동·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취락의 경제기반

1) 농업

본 지역은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며 하천은 건천을 이루고, 투수성이 큰 화산지형으로 주변의 완만한 대지를 활용하여 밭농사에 주력하였다. 토양이 사질로서 배수가 양호하고 양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아 농산물 수확고는 저조하였다.

1979년 말 성읍리의 총면적은 2,400여 ha로서, 그 가운데 밭은 11%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임야라고 하는 것은 반도부처럼 나무가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릉지나 풀밭으로 되어 있어서 방풍림이나 방풍벽을 조성하고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여 지력증진에 힘쓰면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개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37) 吳洪植(1969), 전계서, p.48.

38) 제주도(1980), 전계서, p.22.

39)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1995), 전계서, p.36.

<표 5> 성읍1리 토지현황(1979년 12월 말)

종류	밭	임야	기타(대지포함)	계
면적(단위 : ha)	278.3	2,043.6	121.6	2,443.5
구성(단위 : %)	11.4	83.6	5.0	

자료 : 제주도(1980), 「城邑民俗마을 保存 및 育成基本計劃」, p.28.

1980년에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되기 전인 1979년의 소득현황을 보면,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것은 유채, 쌀보리, 고구마 순이고 참깨도 상당한 면적에 심었다. 당시에 가장 소득이 많은 고구마는 본 지역의 토질에 맞아 매년 대량생산으로 농가소득에 대종을 이루었고, 유채 역시 1960년대 이후 겨울철 경제작물로 재배되기 시작하여 농가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쌀보리, 참깨 순이다.

논이 극히 적은 제주도에서 예전에는 중요한 식량작물의 몫을 차지하였던 육도(陸稻)가 1980년대까지도 재배되었으나, 경제작물의 도입재배 및 생산비, 인건비 등의 앙등으로 오늘날에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제주도에서 감귤의 재배는 1964년을 기점으로 하여 산업 구조상 중요한 경제작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1968년 이후 재배 면적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읍리 북쪽에 있는 감귤원은 1970년을 전후하여 이 마을 출신 제일 교포들의 투자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1979년 감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2.1%에 불과하여 기후조건상 성읍리는 서귀포에 비하여 감귤재배가 적합하지 않으며, 자연조건이 작황에 민감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량의 편차가 비교적 크다.

<표 6> 성읍리 소득현황(1979년 12월 말)

구분	종별	면적 (단위: 평)	생산액(단위) : 천원)	구분	종별	면적 (단위: 평)	생산액(단위) : 천원)
식량 작물	미 곡	97,560	21,328	채소	무	43,560	16,443
	쌀보리	576,480	70,150		당 근	22,150	21,863
	보 리	177,764	25,552		배 추	11,951	11,462
	조	52,236	6,848		마 늘	6,695	6,957
	콩	97,743	13,983		고 추	2,252	1,080
	팥	69,458	8,073		파	1,500	1,301
	녹 두	3,400	422		호 박	800	520
	고구마	524,877	118,712		오 이	400	226
	감 자	27,762	11,963		시금치	300	223
	계	1,627,280	277,031		계	89,609	60,118
특용 작물	유 채	594,200	81,824	과실	감귤	58,950	84,888
	참 개	377,490	69,524	총계			
	계	971,690	151,348			2,747,529	573,385

자료 : 제주도(1980), 「城邑民俗마을 保存 및 育成基本計劃」, p.29.

<표 7>에서 1999년 12월 말 영농현황을 보면, 감자, 당근, 감귤, 콩 등 밭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 감자는 생육기간이 짧아 봄·가을에 두 번 재배가 가능하며, 식량, 전분가공, 채소로 이용되고 있어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당근은 1970년대 경제성 작물로 등장하여 다른 작물보다 재배하는데 일손이 덜 들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특히 당근은 거뭇들이는 데 일손이 적게들고 중간상인이 발매기로 사가기 때문에 농가에 일손이 수월해졌고, 가격도 다른 작물에 비하여 좋은 편이다. 일반 밭작물 중 지역특성에 맞는 감자, 당근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조상 대대로 경작하던 중요한 식량작물인 보리는 거의 재배하지 않고 있으며, 척박한 제주 땅에 적응력이 강한 조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구마와 유채 등은 타 작물로 대체되었다.

<표 7> 성읍1리 영농현황(1999년 12월 말)

(단위 : 면적 ha)

총면적	감귤	당근	감자	콩	참깨	메밀	조	팥	흑대두
2503	68	108	126	22	13	2.0	2.4	3.3	2.5

자료 : 표선면 산업지원담당

80년대 중반을 넘어 민속마을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관광업소(음식점, 토산품판매점, 특산물판매점, 승마장 등) 경영 및 종사가 관광수입원이 되었으며 상업이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은 이 마을에서 주요한 생계활동이다.

2) 목축업

제주도의 목축은 고려 충렬왕 3년에 수산평에 목마장을 설치하여 원으로부터 소·말·당나귀·양 등 수십 마리를 실어 와 목장을 열고 방목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제주도 목축의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수산평의 위치는 현재 천미천 중심의 천미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가축의 사료로 목초를 확보하기 위해서 겨울철의 건조기를 택하여 연례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200~600m의 산중턱에 방화를 하였다. 환상의 초원지대를 만들고 가축의 초원 외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上·中·下場城이 축성되었다.⁴⁰⁾

성읍리는 광대한 평야와 완만한 경사지, 겨울철의 탁월풍을 막는 제주도 최대의 기생화산군 분포지역이다. 초식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초자원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농업 이외로 목축업이 이루어져왔다. 더욱이 경지면적이 비좁은 데다가 농토가 기름지지 못하고 기상조건이 농사짓기에 알맞지 못하여 예로부터 농산물 수확고는 펴 낮았다. 반면에 따뜻한 기후와 다량의 강우는 풍부한 초자원의 공급을 가능케하여 중산간지대의 광활한 목야지에

40) 吳洪哲(1969), 전계서, p.45.

서 축산업이 성행하였다.

<표 8>에서 1979년 말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소가 약 750 마리 가량 있어서 한 집에 두 마리 이상이 있는 셈이고 가축사육이 주업인 집이 많다. 특히 이곳에서는 소를 농작업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육우를 기르는 셈이 된다. 돼지는 211 마리로서 거의 집집마다 한 마리씩 키우는 셈이며, 말도 45 마리 있다.

닭의 사육두수를 보면 1979년 말 186 마리에서 1999년 10,000 마리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다른 가축에 비해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비교적 기업화가 빠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성읍리는 야초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이 광활하여 한우사육의 적지로 그 개발잠재력이 매우 크나, 1999년 말 성읍리의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민속마을 지정이후 관광업소 경영 및 종사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가축사육두수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성읍1리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은 농가호수)

구분	한우	육우	교잡우	돼지	말	닭	토끼	개	비고
1979년 말	416	90	252	211	45	186	9	49	
1999년 말	-	-	20 (8호)	-	31 (1호)	10,000 (5호)	-	-	승마장 6개 소에 승마용 말 401필

자료 : 제주도(1980), 「城邑民俗마을 保存 및 育成基本計劃」, p.28, 표선면 산업지원 담당(2000).

과거에는 조를 파종한 후에 흙밟기에 말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에만 있는 특이한 방법이었다. 우선 소가 토지를 갈고, 여기에 종자를 뿌려, 땅을 고르는 기구를 사용하여 흙을 잘 섞은 후에 여러 마리의 말을 풀어놓아 마구 돌아다니게 하여 꼭꼭 밟게 한 후 파종 후의 진압을 하는 것이다. 흙알갱이가 너무 작고 건조하기 때문에 밟아에 필요한 수분공급이

곤란하므로 밭아 늘려서 밀착시켜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⁴¹⁾ 오늘날은 농기계 보급으로 인해 말이 이용가치가 하락 감소추세에 있다. 1985년 이후 조랑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로 승마장이 활성화되었다. 한국마사회에서 개량마와 더불어 제주 재래마도 경마에 이용하는 등 제주마 사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경주용마는 국산마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외국산 씨암말이 도입되어 국산경주마 사육두수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소득 산업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축산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을 이용한 경주, 승마, 건강식품 개발 등 다양화가 예상된다.

성읍리의 목축방법은 광활한 초지를 이용한 방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방목지역은 해발 200~600m의 중산간지대로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도 빗물의 삼투성이 크기 때문에 반건조 상태로 광대한 초지를 이루며, 겨울 기온이 -5℃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적어 방목기간이 길다.

관광지화 되기 이전 성읍 주민들의 주된 생계수단은 농사가 위주이었으며 축산업을 겸하고 있어 반농반축(半農半畜)이거나 주농부축(主農副畜)이었으며, 돼지, 소 등의 가축사육이 주업인 집이 많았다. 성읍리의 혜택 받은 기후와 용암류 및 화산분출물질로 이뤄지는 완만한 경사지의 광대한 들판, 그리고 풍부한 야초 자원은 축산업의 적지로서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

41) 제주시 우당도서관(1999), 「濟州島の 경제」, pp 38~39

4. 취락의 공간구성

1) 가옥의 분포

성읍리는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에 속해있는 산간 취락의 하나이다. 성읍리의 면적은 성곽내가 103,510㎡이고, 성곽을 중심으로 하여 성읍리 일대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790,747㎡이다.

취락 구성면으로 보면 관아의 집중이 나타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민가들이 모여 전체적인 큰취락을 이루며, 가옥의 밀도가 높은 집촌을 이룬다.

성곽을 중심으로 북쪽의 영주산을 진산(鎭山)으로 남산봉을 안산(案山)으로 삼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동향인 향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물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공간배치에 있어 남향을 중시한다.

성읍리의 민가는 1826년 큰 화재로 80여 동이 불탄 적이 있었고, 1948년 4·3사건으로 서문 밖 민가들이 불에 탔으나 19세기 초의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2000년 1월 현재 건축물 667동에 초가지붕이 414동, 기와지붕이 14동, 슬레이트지붕이 228동, 스라브 5동, 기타 6동이 있다.⁴²⁾1979년 말 당시의 민가현황은 다음 <표 9>에서와 같다.

<표 9> 민가 현황(1979년 말)

등 급	호 수	동 수				건 평	대 지
		초 가	슬레이트	기 타	계		
A	30	80	4		84	1,196평	4,735평
B	30	57	15		72	838	4,242
C	42	50	54	1	105	1,505	7,752
계	102	187(2,349평)	73(1,159평)	1(31평)	261	3,539	16,729

자료 : 제주도(1980),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 p.33

42) 남제주군(2000), 「새천년을 맞아 이제 성읍민속마을이 변하고 있습니다」, p.5.

성읍리 취락의 공간구성으로는 집으로 들어서는 입구 양편에 좁고 길게 돌담을 쌓아 골목처럼 만든 '올레'를 보통 두고 있다. 소로길이라도 너무 웅졸하지 않고 골목이나 '올레'가 지나치게 좁지 않다. '올레' 입구 양쪽에는 '정주목'이나 '정주석'(출입구 양쪽에 세워 정낭을 끼워놓는 나무나 돌)을 세우고, 세 개의 정낭⁴³⁾을 걸쳐놓아 주인의 외출 유무를 알렸다. 정낭이 모두 걸쳐져 있으면 식구가 멀리 나가 아무도 없다는 표시이고, 둘이 걸쳐져 있으면 가까운 곳에 나갔다는 표시이며, 하나만 있으면 이웃에 갔다는 표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마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대지의 경계에는 제주도 특유의 경관인 돌담이 이루어지고 돌담과 울타리나무로 둘러싸인 대지 내에 건물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있다. 집을 둘러싼 돌담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그 집의 지면과 처마 끝의 높이 정도이다. 성읍리의 취락에는 울타리나무가 무성하여 녹음으로 둘러싸인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집과 밭의 울담은 제주도 문화경관의 한 특색이다.

43) 대문 대신 출입구를 가로지르는 긴 막대기, 담과 담 사이에 가로로 나무를 꽂아 동물의 출입을 막는 구실도 한다.

<그림 7> 감골원 및 가옥분포(1982년 지형도)



자료 : 1982년 1:5,000 지형도

가옥은 개인의 생활영역으로 형성된 최소의 기본단위로서 주위의 환경이나 사회집단의 생활방식, 집단의 건축기술 등 문화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역성 구명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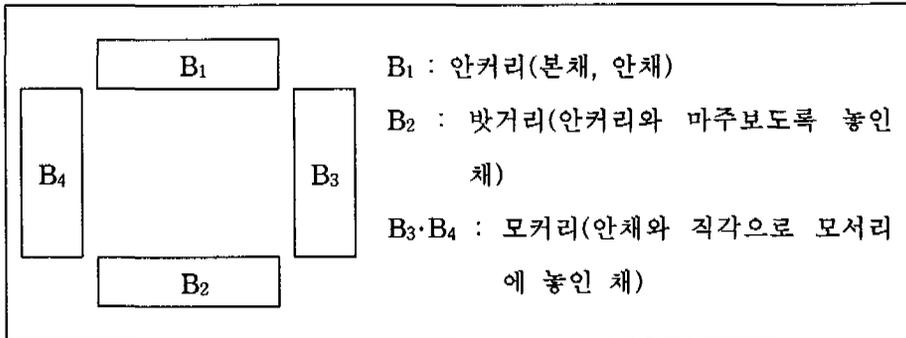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민가는 그 지역 고유의 생활상 및 특유의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데, 성읍리의 가옥은 제주도 농촌의 일반적 가옥형태를 지니면서 5백여 년 간 현청 소재지로서의 특성이 가미된다. 제주도 농촌의 가옥이 한 집안에 들어설 때 안커리(안채)와 밧거리(바깥채) 두 채로 이뤄진 경우가 많고, 모커리(결채)가 가로 세워진 집안이 더러 있는 정도가 제주도 마을의 일반적인 가옥구조라 한다면, 성읍리의 경우는 한 울타리 안에 4채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는 집안이 많다.

성읍리 주택의 특이성은 가옥이 대부분 남향이라는 점이다. 남향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산간지대이기 때문 추위를 막기 위해서다. 물론 한 울타리 안에서 보면 남향 외에 동향, 서향과 북향의 가옥이 없지는 않지만, 남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 주가옥(안채·안커리)은 남향일 수 있도록 가옥들을 배치해 놓았다.

건물배치의 형은 마당의 한 변에 안커리만 있을 때는 ‘一’자형이 되고, 안커리와 모커리가 직각을 이룰 때는 ‘ㄱ’자형이 되며, 마당의 3변에 안커리, 밧거리, 모커리가 놓일 때는 ‘ㄷ’자형이 되고, 마당의 4변에 안커리, 밧거리, 양 모커리가 배치될 때는 ‘口’자형이 된다. 또 안커리와 밧거리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볼 때는 ‘二’자형의 건물배치가 된다.

44) 金洪雲(1992), 「觀光韓國地理」, 형설출판사, p.106.

<그림 8> 제주도 민가 배치도



부지내의 건물은 철저한 별동배치로 ‘ㄱ’자형이라 하더라도 중부지방의 ‘ㄱ’자형과 달리 두 부분이 떨어져 있으며, ‘ㄷ’ 및 ‘口’자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별동의 건물배치는 대규모의 건물보다 소규모의 건물이 건축하기 쉽고, 또 화재를 의식하여 서로 잇닿은 건물보다는 별동 배치를 하였다고 생각된다.⁴⁵⁾ 제주도 민가의 별동 배치는 핵가족적 독립형 가족의 생활이 잘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한 울타리 내에 부모와 자식부부가 동거할 경우에도 독립성이 존중되면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 공간구성인 것이다.

제주도 민가의 칸 배치의 기본요소는 정지(부엌), 상방(대청), 구들, 고팡 등이다. 정지의 주요 기능은 취사, 작업장, 건조장, 저장장 등이며, 밥짓기와 난방용 불때기가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살림채에서 독립해서 따로 두고 있다. 취사시의 화열을 이용하여 방의 난방을 하지 않는 점이 반도부와 크게 다른 점이다.

상방(대청)은 3실형 민가에서는 평면의 중앙에 위치한다. 상방의 기능은 조상의 제사, 가족의 집회, 여름철의 침소, 접객, 식당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제주도에서는 은들의 설비가 없는 상방, 고팡 등의 공간을 방이라 부르

45) 張保雄(1974), “濟州島 民家の 研究,” 「地理學」, 제10호, 大韓地理學會, p.26.

고, 온돌의 설비가 있는 공간을 구들(온돌방)이라 부른다. 구들 고래의 모양은 중앙에 넓은 고래, 그 양옆으로 4~5개의 작은 고래를 만들었고, 굴목⁴⁶⁾에서 중앙고래에다 말린 소똥이나 말뚝, 까끄라기를 깊숙이 밀어 넣고, 입구에다 불을 붙인 다음, 돌로 막아두면 밤새 연소되어, 제주도의 겨울 기온에 적당한 온도가 구들에서 유지된다.⁴⁷⁾

고판은 주로 곡류, 두류, 유채 등을 담은 항아리를 넣어 두는 곡물창고이다. 흙바닥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은 구들정도로 높였고, 온돌의 설비는 없다. 그 외에 가옥의 부대시설로써 특징 있는 것은 바람막이시설이다. 바람막이시설은 강풍지역에서 고안된 인공시설물로서 빗물방지의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다. 기둥구조에 대한 경사각의 조절로 개폐장치가 되어 있다.

2) 토지이용

성읍리의 성곽 안 토지이용은 권위건물인 일관헌을 중심으로 집촌의 구조를 취하며, 동서 약 160m×남북 140m의 성안에는 일관헌과 향교의 옛 건물을 비롯하여 성읍장로교회 등의 종교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이 성안은 관광중심지역으로서 성곽 안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2차선 도로변을 중심으로 관광관련업소(음식점, 특산물판매점, 토산품판매점 등)들이 운집해 있고 그 주변의 많은 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관광관람초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있는 지역이다. 각 가옥마다 소규모의 텃밭을 일구고 있으며 드문드문 대나무 숲과 ‘쑥대낭’이라는 삼나무의 방풍림이 둘러있어 들담과 함께 바람이 거센 이 지역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46)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부분

47) 張保雄(1980), 전계서, p 49.

<그림 9> 감골원 및 가옥분포(1998년 지형도)



자료 : 1998년 1:5,000지형도

성읍리의 성곽 밖 토지이용은 성곽 북측의 동상동, 서상동, 성곽 남측의 서하동에 취락 및 과수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밭, 오름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곽 밖 서쪽 및 북쪽으로 다른 이웃마을과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있으며, 마을의 보호구역 북쪽에는 목초지와 더불어 성읍공동묘지가 입지하고 있다. 성 밖에는 1994년에 남문의팍에 조성된 상가 및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이 있으며, 성곽주변으로 빈집과 과수원 등이 분포하고 있다.

성읍리의 마을 북쪽 어귀에는 '취락구조'라고 하는 일군의 주거지가 있다. 1980년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 보호되어 오다 1984년 6월 7일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문화재보전지역은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왔다.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현대화된 주택의 신·개축이 제한되고 생활환경개선 및 편익복지시설확충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1993년 말에서 1995년 말까지 2년에 걸쳐 문화재보전지역 밖 마을 북쪽 1119호 지방도로변에 신규집단마을을 조성하였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의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당 120평 기준으로 조성한 문화마을은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성읍리의 주거지는 성곽 안의 중심지역에서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성곽 밖의 우회도로가 관광교통도로로 이용되면서 외곽지역의 생활주거지마저 관광중심지역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관광자원의 분포와 특성

1. 관광자원의 분포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에게 관광동기나 의욕을 고취시키고 관광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물로서 유형무형의 관광대상을 말한다.⁴⁸⁾ 그러므로 관광자원은 관광의 유인력이 되는 자연이나 인문상의 관광대상물을 의미하며, 관광의 목적물이 되는 요소를 지닌 것이나 관광재로서 가치를 가진 것들이 모두 해당된다.

제주도에는 도처에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문화적 대상은 극히 빈약한 상황이다.⁴⁹⁾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읍리에는 주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서민의 생활기반인 민속자료와 유·무형문화재를 풍부히 지니고 있다.

성읍리에 있는 문화적 자원은 제주의 풍토성과 서민문화를 짙게 반영하며, 희귀하고 독특하여 학술적 가치를 풍부히 지니고 있어 양적으로 부족한 제주도 문화자원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주고 있다. 성읍리의 관광자원으로서 이미 지정 보호되고 있는 것들의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48) 鄭承鎰(1985), 「관광자원론」, 형성출판사, p.16.

49) 송성대(1984), 전계서, p.525.

<표 10> 관광자원 현황

구분	종별	명칭	비고
자연적 관광자 원	천연기념물	성읍리 느티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1그루 팽나무 3그루
	기념물	녹나무	
	기암(지형지질)	정소암	
문화적 자원	민속자료	조일훈 가옥 고평오 가옥 이영숙 가옥 한봉일 가옥 고상은 가옥	1곽
		성읍민속마을	935필지 790,747㎡ (239,200.9평)
		연자매	
		돌하르방	석상 12기
		제주도의 초가	38가구 98동
	민속 신앙	안할망당 문호당 일햇당	일관헌 옆 <구석밭> 경계 가시리 쪽 돌더미 동산
	무형문화재	제주민요	오돌또기, 멧돌노래, 산 천초목, 봉지가 등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고소리술	토속주
		유형문화재	정의향교
	일관헌		1동, 대지 : 1,529㎡, 건 물 : 104.4㎡
정의성터			
사회적 자원		핑메밀국수, 퉁돼지구이, 쭈쌀막걸리	
산업적 자원		감귤농원, 축산단지, 갈옷 제작, 석각공예제조	

자료 : 남제주군(1992), 「남제주의 문화유적」 및 현지조사.

2. 관광자원의 특성

제주도는 항공, 해운으로 용이하게 연결되는 특성과 기후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 동·식물군,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바다와 접하는 해안경관, 산악이 창출하는 자연경관 등 다수의 관광자원이 산재하여 있다. 또한 육지부와는 격리되어 독립된 하나의 지역사회를 형성함으로써 도서지방의 전설과 민요, 생활양식, 언어 등의 토속문화가 계승되어 오고 있다.

성읍리는 500여 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였고, 70년대 이전까지 교통도로가 놓이지 않아 거의 고립되다시피 한 지역으로서 전통의 전승 및 보존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현재 제주도를 대표할 전통적인 요소들이 가장 짙게 남아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특유의 전통가옥을 비롯하여 향교, 일관현, 돌하르방, 성터, 연자매, 옛 관공서 터, 옛 비석 등이 남아 있으며, 제주도의 토속음식인 똥돼지구이와 좁쌀막걸리도 맛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마을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문화재를 갖고 있다.

성읍리의 자연적 관광자원으로서는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 및 팽나무가 있고, 인문적 자원으로서는 중요민속자료인 성읍민속마을과 제주 특유의 민속가옥이 있다. 지방문화재로서 정의향교와 일관현, 돌하르방 등 대부분 집단화된 문화유적지이다.

1) 자연적 자원

성읍리의 자연적 관광자원은 무엇보다도 이 마을 어귀에서 제주도 자연적 관광자원의 하나인 초원의 전형과, 이 초원을 둘러싸고 있는 오름과 한라산의 조화미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6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느티나무 및 팽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그루가 남아있는 느티나무의 높이는 20m, 밑둥치 둘레는 5.5m이며 수령은 약 1,000년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느티나무로

추정되고 있다.⁵⁰⁾ 느티나무는 부락, 당산, 향교, 사찰에 많이 심는 정자나무의 일종으로, 제주도에서는 “굴무기낭”이라 불리고 있다.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크고 곧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예부터 중요한 건축재나 가구 재료로 쓰여 왔으며, 제주도에서는 ‘남방에’나 ‘도고리(합지박)’ 등의 재료로 손꼽혔다. 그러므로 거수나 고목으로 남아 있는 것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느티나무는 마을에 있어서 정자나무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중심으로 도로가 배치되어 공간구조가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기후는 따뜻하나 토지가 척박하고 돌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농업 생산을 올리기 어려워 겸업자가 많았다. 바람이 강하고 부녀자들도 잠수어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자연환경은 육지와 다르게 정자가 발달하지 못하였다.⁵¹⁾ 유교의 상징적 나무로서 느티나무는 도읍 또는 취락의 입구나 대로변의 요지에 심었으며, 돌무덤, 당과 함께 근대화 이전의 도로경관 중에 가장 뚜렷한 요소의 하나였다.⁵²⁾

팽나무를 제주도 방언으로는 ‘폭낭’이라고 한다. 일관헌 내외에 몇 그루가 있으며 나무높이 10m~18m, 몸통둘레 2.4m~4.5m의 큰 나무로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⁵³⁾ 워낙 오래된 나무여서 속이 텅 비어 있으며, 그 속에 고인 물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병에 특효약으로 쓰이기도 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순이 먼저 나는 방향을 보고 점을 치곤 해왔다. 동서남북 중 제일먼저 순이 나기 시작하는 방향의 동네에 풍년이 들게 되고, 나무 가운데에서부터 순이 돌기 시작하면 성읍리 전체가 풍년을 맞는다는 속신이 전한다.

50) 한라산학술대탐사(2000), 「천미천」, 한라일보사. p.153.

51) 李惠源(1994), 전계서, p.86.

52) 崔永俊(1983), 전계서, p.8.

53) 南濟州郡(1992), 「南濟州의 文化遺蹟」, p.18.

2) 문화적 자원

앞에서 밝혔듯이 성읍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제주도의 다른 마을에 비하여 풍부한 민속자료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학술가치와 문화재가치를 지니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성읍리의 문화적 자원으로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인 민속가옥 5채와 성읍민속마을, 도지정 민속자료로서 돌하르방과 제주도의 초가가 있으며,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연자매와 민속신앙이 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서는 제주민요, 도지정 무형문화재로서 토속주가 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로는 정의향교와 일관헌이 있으며, 기타 '갈옷'과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 향토음식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요민속자료 제68호인 조일훈 가옥은 안커리, 밧거리, 축사 및 대문으로 구성되어있고, 안커리는 3칸으로 큰방, 상방, 고팡, 부엌, 작은방이 있으며 뒷마루 쪽으로 호령창이 있고 큰방과 접한 곳에 굴목이 있다. 안커리의 방위가 정남향이고, 밧거리가 북향으로 안커리와 대향하고 있으며, 마당의 동편에 모커리(외양간), 서편에 모커리(연자맷간) 등으로 '口' 자형 건물배치로 되어 있다. 이 집은 도시형 주거지로서 올레[門路] 대신 대문간을 따로 배치하였다.

중요민속자료 제69호인 고평오 가옥은 안커리, 밧거리, 축사 및 대문으로 되어 있으며 마당을 가운데 두고 'ㄷ' 자형이다. 안커리는 3칸으로 방, 상방, 고팡, 부엌이 있고 방과 접한 곳에 굴목이 있다. 안커리 뒤에 장독대가 놓여있고, 동백나무가 서 있는 공간이 있으며, 밧거리 뒤에 텃밭이 있다. 안커리와 밧거리는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으며 모커리가 있다. 안커리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작은 구들이 없는 3칸집이고 정지 안에 봉덕화호가 있다. 집의 뒤 툇에는 골방이 있다. 밧거리에는 전에 사랑채를 쓰던 공간으로서 4칸집의 약간 특수한 형태의 평면이다. 즉, 상방이 집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동쪽으로 치우쳐있는 점이 제주도의 일반적인 집구조와 다른 점이다. 모커리는 헛간, 쇠막(외양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3칸집이며, 먼문간(대문)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70호인 이영숙 가옥은 안커리와 헛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커리는 한라산 남쪽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은 구들이 있는 전형적인 3칸집이며, 마루 전면에 난간이 있고, 큰방과 접한 곳에 굴목이 있다. 정지 공간이 비교적 작고, 앞에는 물구덕(물항아리를 담아 나르는 바구니)을 엮어 두는 물팡들이 있다. 작은 구들은 상방(대청)쪽에 붙여 만들었는데 비교적 작다. 헛간채는 2칸이며 가장 보편적인 평면의 칸살구조로 되어있다. 정의향교와 이웃해 있는 두거리 집으로 안커리와 자그마한 헛간이 마주앉은 단출한 가옥형태로 이문간도 없고 정낭도 없다.⁵⁴⁾

중요민속자료 제71호인 한봉일 가옥은 초가 3동에 '一'자형 우진각 지붕 초가인데 안커리, 밧거리, 대문간으로 구성되었다. 안커리는 작은 구들이 있는 3칸집으로, 큰방, 작은방, 상방, 고팡과 정지가 있으며, 마루 전면에 난간이 있고 큰방과 접한 곳에 굴목이 있다. 가옥은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울타리 동편으로 정의성지가 접해 있고, 밧거리는 4칸으로 상방 뒤쪽에 작은 구들을 배치한 점이 특이하다. 대문간은 올레를 만들고 이문간(가까운 대문)을 두어, 헛간과 쉼막이 달려 있는 이문간에 들어서면 좌우에 안커리와 밧거리가 마주보고 있다. 안커리에는 재래식 온돌인 굴목으로 통하는 다른 문을 두지 않고 난간 쪽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한라산 남쪽의 가옥특징을 잘 보여 준다.⁵⁵⁾

중요민속자료 제72호인 고상은 가옥은 안커리와 모커리(결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커리는 3칸인데 방, 상방, 고팡, 부엌이 있으며, 마루 전면에 난간이 있고 방과 접한 곳에 굴목이 있다. 좁은 대지에 안커리와 헛간이 'ㄱ'자형으로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으며, 올레와 텃밭 등의 외부공간은 거의 두지 않았다. 모커리에는 정지간(부엌)이 만들어 졌으며, 안커리의 서쪽 목에 배치되고 헛간과 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전에는 대장간으로 쓰였

54) 남제주군(1994), 전계서, p.105.

55) 상계서.

다.⁵⁶⁾

제주도의 민가구조는 굴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으며, 취사시에 생기는 재는 비료로 사용된다. 온돌 아궁이를 별개로 하여 취사시 화열을 난방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반도부에 비하여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이다. 굴뚝이 따로 없는 것은 온돌용 연료에 대부분 마소의 말린 똥을 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옥의 외벽은 외부온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다공질 현무암으로 쌓고 틈새는 점토로 마감하였다. 지붕의 물매는 느리고 유연하게 처리하여 떠를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굽은 줄로 바둑판처럼 엮었다.

중요민속자료 제188호인 성읍민속마을은 우리나라 읍성에 많은 [우]자 모양의 공간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남북 자오선축 머리에는 동헌을, 가운데는 객사를, 남쪽에는 남대문을 두는 형식을 취했다. 성곽은 직경 2,520척(약 770m) 크기의 귀족인 내모퉁이이며, 그 중심은 객사 대문으로 되어 있다. 지정면적은 935필지 790,747㎡(239,200평)이며, 성곽내 면적은 103,510㎡(31,311평)이다.

돌하르방은 우석목·무석목·백수머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우석목이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이었다. 돌하르방은 아동들이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오늘날은 돌하르방이 대표적 명칭으로 되었다. 석상의 형태는 조금씩 다름이 있지만, 병거지형 모자, 부리부리한 왕방울 눈, 큼지막한 주먹코, 꼭 다문 입술에 두 손은 배 아래에 위엄있게 얹은 모습을 하고 있다. 돌하르방이 세워진 위치가 대부분 성문 입구에 있음으로 보아 위치표시의 기능, 문 앞에서 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주술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정의읍성의 성문을 지키는 돌하르방은 남문과 서문 앞에 각각 4기가 서있고, 동문 자리에도 4기의 돌하르방이 있다. 제주 의 민속공예품으로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석상이다.

성읍리를 민속마을답게 이끄는 열쇠는 유다른 문화재와 더불어 아직도

56) 상계서, p.107

초가집이 흔하게 보존되어 온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벼농사가 흔하지 못한 관계로 벼짚 대신 제주산 새[茅]를 지붕의 재료로 쓰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제주 초가와 용마름(기와지붕의 용마루에 해당)은 평퍼짐하고 겹고삐이 마치 그물을 뜨듯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강한 바람의 피해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새는 자급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붕을 이는 시기는 12월에서 2월 사이가 된다. 지붕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덮은 위에 다시 덮어하므로 상마루의 선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30~40cm 두께의 새[茅]지붕은 반도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을 나타낸다. 초가의 지붕을 잇는 방식이 반도부와 다르므로, 관광시즌을 골라 한 동씩 지붕을 덮는다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흥미를 일으킬 것이다. 돌담과 초가집으로 대표되는 인문적 경관은 제주의 자연과 잘 조화되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연자매를 마을에서는 ‘뭇궤’ 또는 ‘뭇방에’라 한다. 말을 이용한 밧들, 또는 방아라는 뜻이다. 반도부에서는 계곡의 흐르는 물에 수차를 걸어 그 동력을 제분이나 정미에 이용하였지만 제주에서는 단 하나의 수차도 없다. 대신에 정곡용으로 말의 힘을 이용하여 뿡는 말방아가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 경작지의 대부분이 밭이어서 재래의 주곡인 조와 보리 및 잡곡을 장만하는 데는 쪼고 뿡아야 할 일거리가 흔했다. 그리하여 연자매의 이용도가 높았고, 숫자도 꽤 많았다.

성읍리에서는 민간신앙으로서 유교식 부락제인 포제(酬祭)가 아직도 치러진다. 제단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포제동산>에 있다. 제향은 여느 마을과 비슷하지만, 이곳의 포제에 특이한 것이 있다면 제향 대상신이 <諸首任神之位>·<染疾神之位> 외에 <牧童神之位>가 있다. 제신 가운데 목동신이 끼어 든다는 것은 성읍리가 예로부터 농업과 더불어 목축업이 주요 생업으로서 매우 소중하였다는 뜻이다.⁵⁷⁾ 포제는 마을사람이 총동원된 남성 위주의 제향이다. 제사를 올리는 날은 매년 음력 정월 초정일(初丁日)에 지

57) 제주도(1980), 전계서, p 46.

내며, 제향비는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각종 신들이 존재한다. 성읍리에는 본향당인 ‘안할망당’을 비롯하여 ‘문호당’, ‘일렛당’ 등의 신당이 존재하고 있다. 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곳으로 마을신앙의 중심이 되어왔다. 마을의 대표적인 무속신앙의 기도처인 ‘안할망당’은 관청안에 있다하여 ‘관청할망’이라고도 불리며, 일관현 옆에 있는 성읍의 본향당이다. 마을의 부인들은 해마다 정초가 되면 제각기 찾아가서 치성하며, 또한 정성을 드릴 필요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다.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가 남성들의 재래 신앙인 반면 여성들은 무속적 신앙 생활을 하는 이중구조를 띠고 있는 점이 제주도 민간신앙의 특색이다.

성읍리의 무형문화재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인 제주민요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인 토속주가 있다. 성읍리의 민요는 제주도의 어느 농촌에서나 전승되는 노동요, 의식요와 오랜 세월의 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전해지는 성읍리 만이 지니는 창민요가 있다. 성읍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창민요로는 ‘용천검’, ‘판덕정앞’, ‘중타령’, ‘질군악’, ‘오광산타령’, ‘사랑가’, ‘자은사랑가’, ‘계화타령’, ‘동풍가’ 등이 전해진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창민요로 널리 알려진 ‘오들또기’도 성읍리에서 제대로 전승되며 ‘봉지가’, ‘산천초목’ 역시 성읍리에서 전승되고 있다.⁵⁸⁾

‘오메기술’은 성읍리에서 전승되어온 토속주로서 각종 의식행사시 사용해 왔다. 제주도에서는 탁주를 두고 ‘오메기술’이라고 하는데, ‘오메기술’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오메기술’은 ‘오메기’라는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재료는 주로 차좁쌀을 사용했으며 술독에서 맨 위에 뜬 맑은 웃국은 청주가 되고 밑국은 오메기술(탁주)이 된다. 현재 김을정씨(표선면 성읍리 673)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사단법인 성읍민속마을 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도는 논의 매우 귀한 섬이라 쌀로 술을 빚지 않고, 발곡식인 조를 사용한다.

58) 남계주군(1994), 전계서, p.112.

무형문화재 제11호인 고소리술을 이원진의 「耽羅志」에서는 ‘多用燒酒’라고 했다 소주는 증류주인데 바로 이 ‘고소리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고소리술을 빚는 데는 우선 ‘오메기술’을 발효시킨 술(59)으로 증류하는 것으로 조를 비롯한 잡곡을 재료로 삼았다. 술독에 묻어둔 술미를 술에 넣어 ‘고소리(소줏고리)’로 증류해서 소주를 고아낸 술을 ‘고소리술’이라고 한다.

향교는 관학 교육기관으로써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조선시대에 향교는 문묘를 보관하는 제례적 기능과 유교의 내용을 보급하는 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현청이 성산읍 고성리로 부터 옮겨짐에 따라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가 된 성읍리에는 정의향교가 이전해와 이후 1914년 현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5백여 년 간 정의현의 정치와 교육,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경내의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과 3문 등이 있으며, 대성전과 명륜당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지붕은 팔작이며 곡선은 그간 여러 차례 이건과 보수로 인하여 원형이 다소 변형되었다. 대성전은 성현을 모신 건물로서 영조 14년(1738년)에 창건되었다. 정의향교는 향교재단이 총괄하고 있으나 정의향교에서 학문을 닦은 자를 전교로 추대하여 전교 중심으로 유림들이 마음을 모아 관리하며 제례를 거행하고 있다.⁶⁰⁾ 대부분의 향교 건물이 남향하는 것과는 달리 정의향교는 정의읍성의 서문 옆 약간 높은 언덕에 동향으로 위치해 있다. 보통 내륙 읍성들의 향교가 성밖 3~5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정의향교는 성안에 있다. 이는 제주지역 읍성의 특징이다.

성안의 주 건물인 일관헌은 오늘날의 군청에 해당되는 곳으로 당시 정의현감의 집무청사였다. 1443년에 창건되어 1898년(광무 2년)에 중수되었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그 뒤에는 리사무소로도 이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조선시대의 것을 고증하여 1975년 옛 건물을 헐어내고 시멘트 기둥을 사용하여 복원한 것이다. 일관헌 건물은 관청건물

59) 쌀을 찌서 식힌 뒤에 누룩을 섞어 버무린 지에밥. 술을 만드는 원료임

60) 공군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 7인(1996), 「이런디 알았수과」, 공군제8546부대, p.80

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석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 지붕에, 건물의 좌향은 북서쪽에 영주산을 뒤로하여 남동향하고 있다. 일관헌(日觀軒)은 정의읍성의 동헌으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권위건물이다.

‘갈옷’은 옷감에 풋감을 짚어서 물들여 만든 제주도 고유의 노동복이다. 광목천에 여물어 가는 풋감을 함지박 따위에 넣고 뿔은 감물에 옷을 적서 물들여 말려 만든다. 약간 붉은 빛깔의 ‘갈옷’은 땀 흡수가 좋고 통기성이 좋을뿐더러 질기고 매를 잘 타지 않아 예부터 제주사람들이 일할 때 흔히 입는 작업복으로 애용되어 왔다. 흰 무명옷에 비해 3배의 내구력이 있다고 한다. 성읍리에는 ‘갈옷’이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제작되어 이 지역 토산품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매년 9~10월이면 성읍리 남문 광장을 무대로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가 펼쳐진다. 성읍리 남문상가내 마을주관으로, 관광객, 제주도민 등이 참여하며, 전통민속놀이 한마당과 노래자랑 등이 있다. 민속놀이는 무형의 문화자원으로서 관광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고, 지역공동체를 결합시키는 힘을 가지며,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자부심을 높이고 유대감을 제고시킨다. 민속문화발굴보존 및 관광객유치 증진에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성읍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는 쫄면밀국수와 돼지불고기가 있고, 토속주로서 오메기술과 고소리술이 있다. 지방의 향토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환경 등을 바탕으로 그 지역 특유의 조리법이 형성되어 타 지역과는 구별되면서 오랜 기간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⁶¹⁾

61) 정경숙(1995), “관광자원으로서의 향토음식,” 『梨花地理叢書』, 6, 梨花女子大學校, pp 37~67.

IV. 관광업소의 공간구조

1. 취락의 공간구조

성곽이란 어떤 특정한 집단이 그 집단의 보호라고 하는 공동 목적을 갖고 유형의 공간을 확보해 겹쌓은 건축구조물로 안쪽의 것을 성(城), 바깥쪽의 것을 관(郭)이라고 한다.

성곽은 축조한 목적과 기능에 의해서 왕궁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한 도성(都城), 지방의 행정·군사·경제의 중심지인 읍성(邑城),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어용·도피용으로 쌓은 산성, 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창성, 군사적 요충지에 쌓고 군인이 주둔하던 진보(鎭堡), 왕이 행차할 때 잠시 머물기 위한 행재성(行在城), 국경과 요새지에 쌓은 장성 등으로 나뉜다.

읍성(邑城)은 지방의 관부(官府)와 민거(民居)를 둘러싼 성으로, 조선왕조의 마지막까지 존속되었으나, 1910년 일본에 의하여 읍성 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들이 헐렸다. 조선시대의 읍성은 내륙지방에는 비교적 큰 고을에만 있었고, 해안 근처의 고을에는 거의 모두 있었다. 읍성은 부(府)·목(牧)·군(郡)·현의 행정구역단위의 등급에 따라 그 크기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주민의 수효와 관계되었으며, 큰 것은 3,000척 이상, 중간규모는 1,500~3,000척, 작은 것은 1,000척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⁶²⁾

우리나라의 성들은 평지의 경우에는 물을 이용한 천연의 저지선을 만들었고, 산성의 경우에는 규봉(窺峰 ; 넘겨다보는 산)을 피하여 위로부터 공격을 못하도록 위치 선정을 하였다. 평지성의 경우는 대개 앞에는 물이 좌우에서 합쳐서 자연적 참호를 이루게 하고 뒤에는 험준한 산에 의지하도록

6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읍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17권)」, p.493.

하여 방어력을 자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위치선정은 사람의 힘을 가장 덜 들이고 적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형의 유리함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읍성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존재로 고려 말에 처음 등장하여 조선초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읍성은 남해, 서해안 지방과 북쪽의 변방에 주로 축조되었는데, 읍성이 많은 것은 왜구와 거란,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였다.

읍성의 형태는 부정형의 타원 또는 원형을 이루며 돌이나 흙으로 쌓았다. 평상시에는 읍성이 행정단위가 되지만 유사시에는 방어기능의 성곽이 되어 성문을 굳게 닫고 군, 관, 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성을 지킨다. 이렇게 행정과 군사적 측면이 서로 복합되어 있어 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유한 경관구조가 나타나게 마련이고, 특정한 장소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경관의 측면에서 보면 통치, 군사, 교육, 종교의 목적에 필요한 관아가 집중되고 있다.⁶³⁾ 군사적 측면에서는 외적방어를 위하여 취락의 주변을 성곽으로 구축하거나, 때로는 성곽외부를 다시 참호로 구축하여 방어기능을 강화한다.

읍성취락의 주변에는 진산 또는 남산이라고 부르는 요새지를 필수적으로 확보하였으며, 분지상의 지형이 근세사회를 통하여 전형적인 읍성입지로 선택되었다. 진산과 남산은 읍성취락을 지켜보며 배후지의 거주공간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군사적인 것뿐 아니라 통신적 의의도 컸으며, 여기에 봉화와 연기로 긴급한 사태를 알리는 봉수대까지 설치되었다.⁶⁴⁾

진산은 취락의 후면에 위치하여 그 취락을 보호하고,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멀리서도 취락을 대표할 수 있는 수려하고, 장엄한 산세의 산으로 이루어진다. 진산의 의미성은 그것이 방어나 계절풍과의 관계에 의한 합리적 이유 이외에도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취락입지에 대한 특이한

63) 오홍석(1982), 「聚落地理學」, 교학사, pp.13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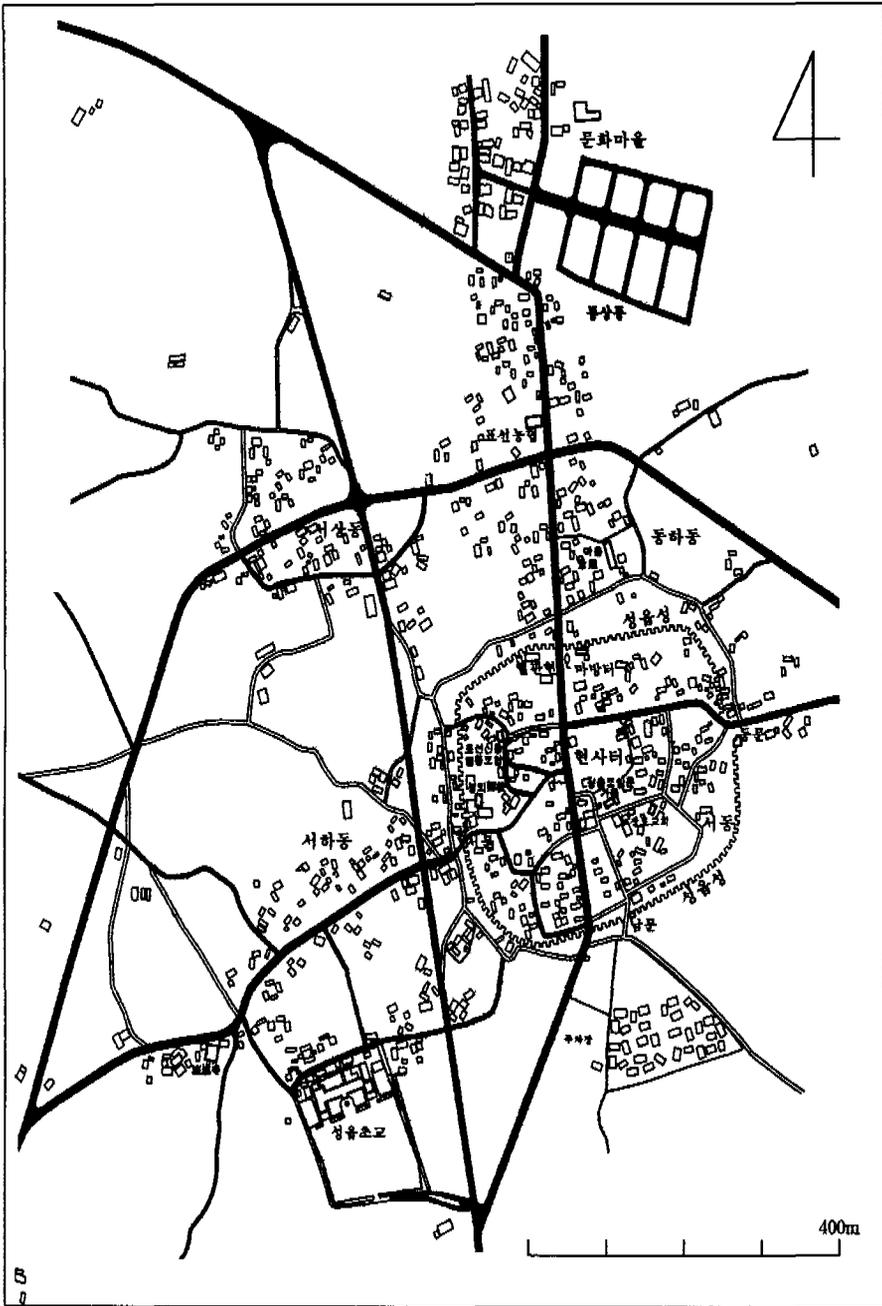
64) 상계서.

풍수사고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진산은 보행인이나 취락 외부인들에게 마을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Land Mark)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산은 대부분 북쪽 10리 이내에 위치하여 풍수적 사고를 만족시켜 주고 있으며 간혹 진산다운 산이 북쪽 10리 이내 혹은 동, 서 10리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남쪽 100리 바깥쪽의 산을 진산으로 삼는 경우까지 있었다.⁶⁵⁾

본 지역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읍성의 중심건축물인 관아는 북측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동헌을 중심으로 서분에 인접하여 향교가, 그 동측으로 객사가 삼각형으로 배치되고 있다. 인접하고 있는 남산은 잔존하는 지명으로 근세 사회를 통하여 봉수와 군사기능을 담당한 장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65) 최창조(1990), 전계서, p.285.

<그림 11> 성읍리의 공간구조



자료 · 1998년 1:5,000지형도

마을의 주축은 남북 축이지만 중심에 있는 객사와 남문을 잇는 축이 북쪽 관아의 축과 일직선이 아닌 단절된 두개의 축을 가지며, 동서 대문을 잇는 축 역시 일직선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이 4개의 축이 만나는 일관현 앞 큰 마당은 생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한다.⁶⁶⁾

정의읍성의 규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원진의 <耽羅志> (1652)로서 성둘레가 2986척, 높이가 13척(1척은 약31cm)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793년에 만들어진 <濟州大靜旌義邑誌>에서는 성 주위를 1990보, 동, 서, 남에 3개의 문루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서 160m×남북 140m의 성곽을 중심으로 성안에는 객사, 현청, 향교 등의 행정적, 상징적 관아건축물과 민가가 입지하고 있다. 성 밖에는 1994년 남문의쪽에 조성된 상가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1995년 말에 조성된 문화마을이 있다.

숙종 28년(1702) 李衡祥 목사가 남긴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旌義講射’와 ‘旌義養老’의 두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객사와 동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객사건물의 주 기능은 첫째, 지방관이 임금에게 정기적으로 보름만에 배례를 올리는 기능과 둘째, 중앙관리가 내려오면 이곳을 거처로 사용하는 숙소의 기능이다. 동헌인 일관현은 고을 수령이 집무하는 장소로 수령의 권위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관아들이 정남향하고 있지만 일관현은 서쪽으로 15° 돌려서 향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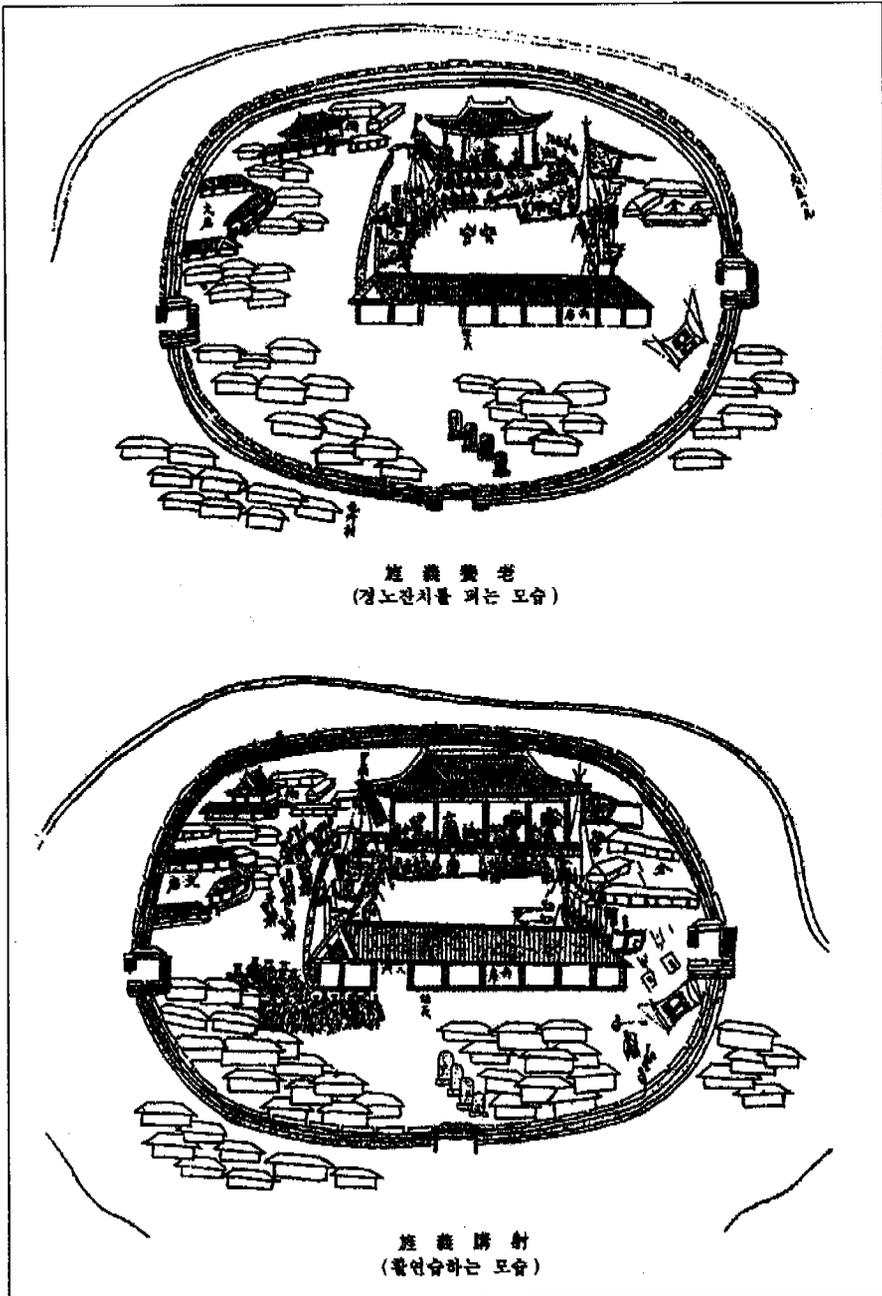
마을의 도로형식은 성곽주위에 등근 도로를 배치하여 사방으로 통하도록 하고 성곽 안에는 T자 모양 막힌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한다. 남문에서 시작하여 객사로 이르는 가로가 남북주축 간선로를 이루고, 동서 간선로는 남북주축에 어긋나게 마주쳐서 3교차로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망의 하나인 동서방향의 가로는 직선이 아닌 활처럼 휘어져 있는데, 이처럼 길을 처리하는 것은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것과 함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행해 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관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66) 남계주군(1994), 전계서, p.29.

작은 공간의 깊이감을 높여준다. 이것은 홍만선의 「山林經濟 十居條」에 “當面直來之路 謂之衝破心須盤今曲轉”이라고 해서 길이 바르고 대문을 향해 오는 길은 나쁘며 반드시 구부리고 굴러야 된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다.⁶⁷⁾

67) 김홍식(1984), 전계서, p.231.

<그림 12> <耽羅巡歷圖>



자료 : 남제주군(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p.216.

2. 관광업소의 출현

관광산업은 농업 및 공업과 함께 지역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녹색관광으로서 환경도 보호하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이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본격화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제주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게되어 교통수단과 시설을 개선하기 시작하였고 행정적으로도 관광개발을 의도에 둔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는 제주도 전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제주도 관광개발은 차츰 본궤도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이후 제주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제주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전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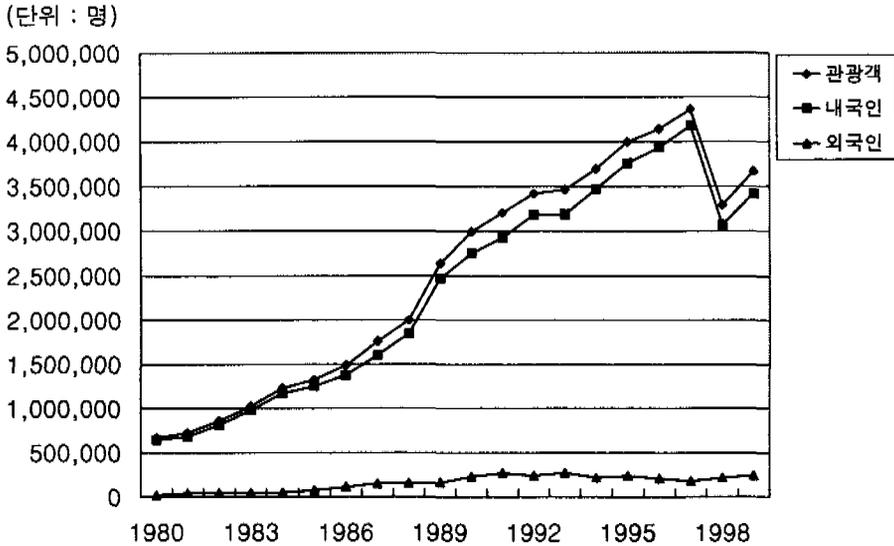
1973년에는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계획인 제주관광개발계획(1973~1982)이 성안되었다. 이 계획은 제주도를 국제관광지로 만드는 청사진이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관광관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관광객들이 휴양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그 골격이다.

1980년대에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었다. 기존 개발계획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통합·조정한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85~1991)이 수립, 추진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 제주도는 경제발전예 따른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그리고 적극적인 관광개발사업 및 관광산업의 진출 등에 힘입어 한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제주 방문 관광객이 급증하여 왔다.

來島 내국인 관광객은 1980년 648,821명에서 1999년 3,419,871명으로 19년 사이 5.3배가 증가하여 연평균 2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제주도 관광객 내도 현황(1980~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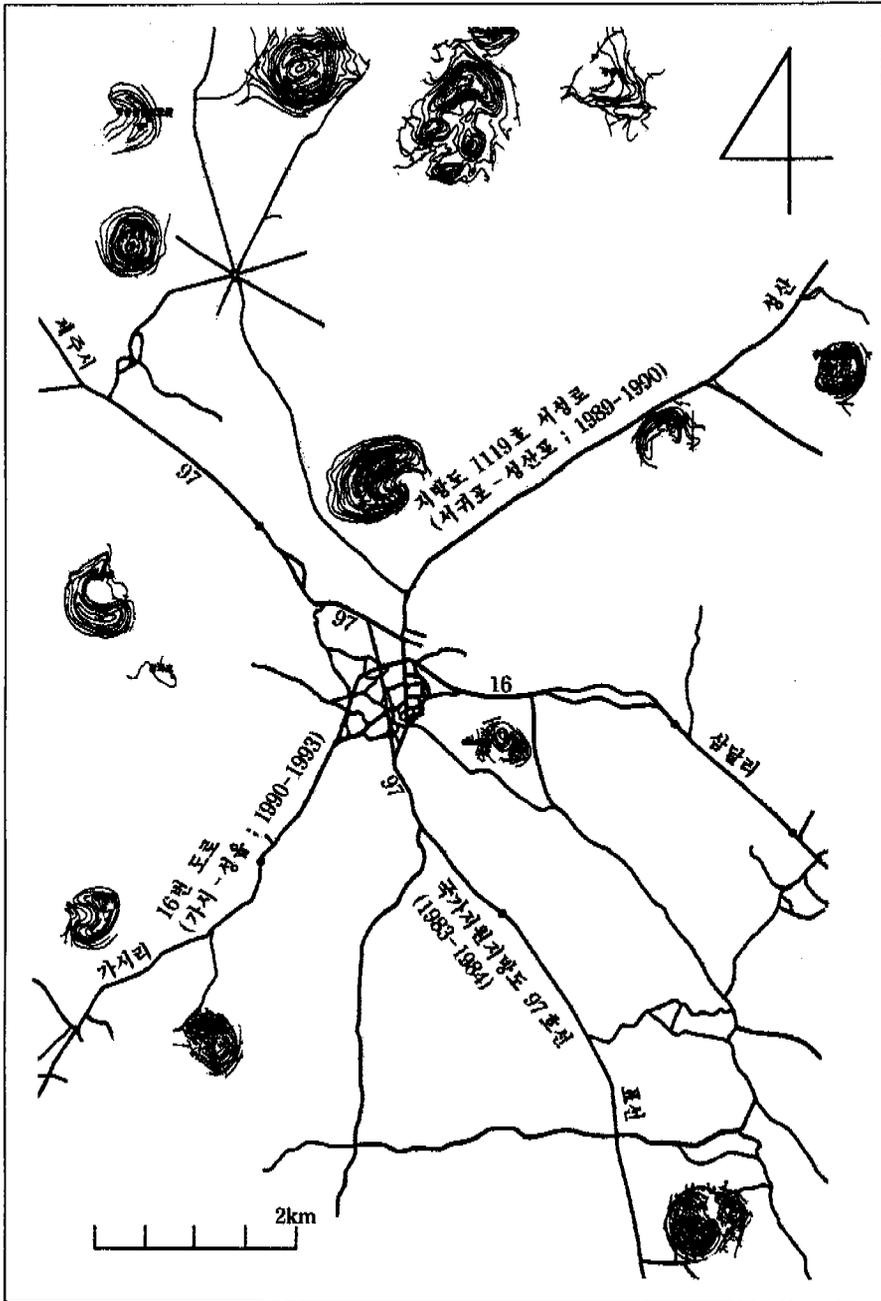
자료 : 제주도 통계연보

도로망의 확충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는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광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읍리의 도로망은 가시리와 성산간을 연결하고 있는 제2우회도로인 국도 16호선이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이 제주와 표선간을, 지방도1119호선(서성로)이 서귀포와 성산을 연결하고 있어 간선도로망은 잘 정비된 지역이다.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의 일부구간은 성곽 내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성읍리는 서귀포, 산굼부리, 성산포, 표선 등 지역간 연결교통망의 주요 경과지이다. 제주-표선 간을 연결하는 동부산업도로를 지나는 시외버스가 15분-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은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4> 성읍리 도로망



자료 : 제주도청 건설과 시설계 및 남제주군청 지적과 도로계(2000년 4월)

3. 관광업소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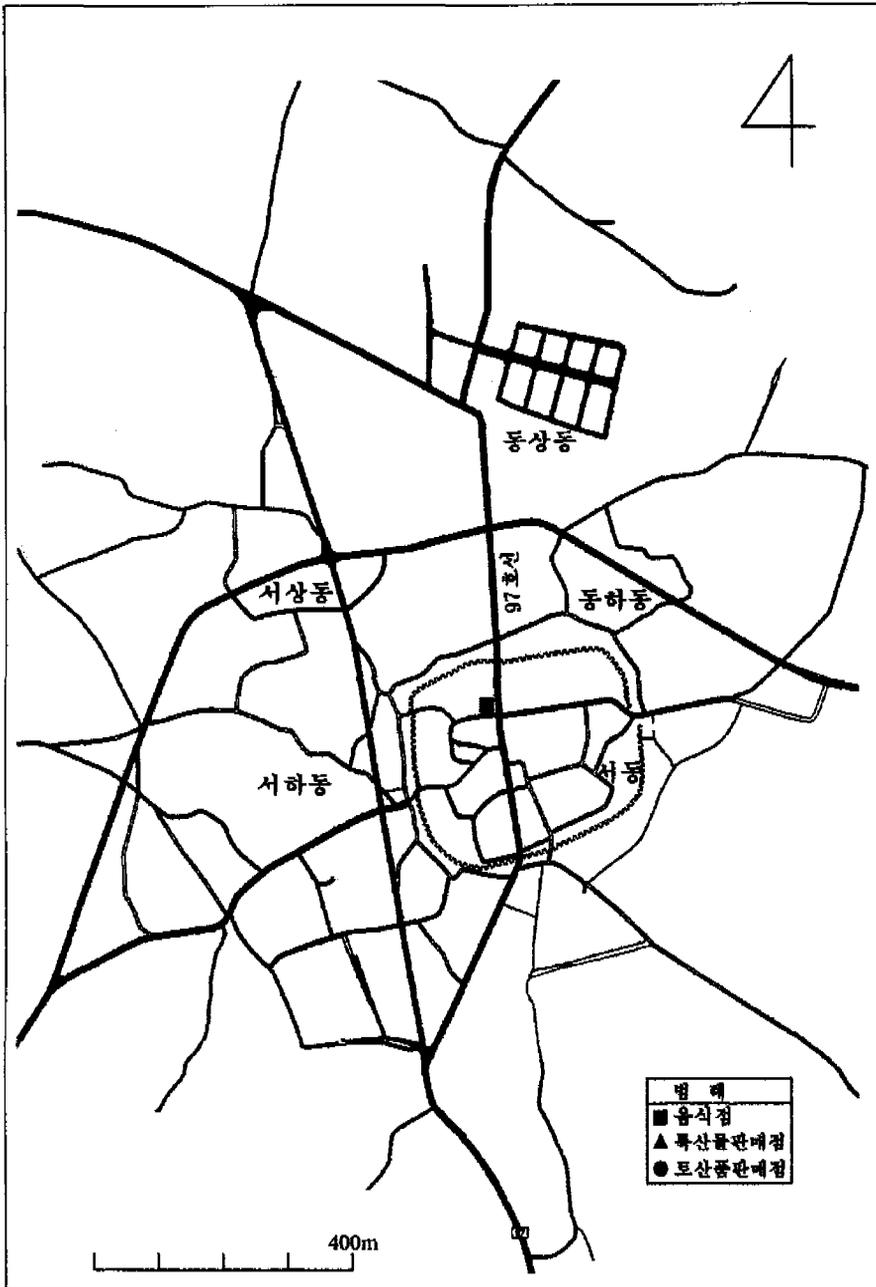
1) 관광업소의 확산

제주도는 1970년대부터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을 목표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힘입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관광목적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관광자원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훌륭한 관광지로서 성립될 수 없으며 관광객이 각종 관광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관광지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성읍리는 1977년 제주도에서 민속보존 마을로 지정되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지만 본격적인 관광산업과 개발정책에 힘입어 관광지화가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1980년 이전 이 지역의 관광업소로는 1977년에 개업한 성곽내 음식점이 유일하다.

<그림 15> 1980년 이전 관광업소 분포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성읍리는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 보호되어 오다 그 중요성이 커 1984년 6월 7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성읍리에서의 관광업소는 주로 중심도로 주변으로 형성되고 있다. 1981년에서 85년 사이 이 지역에서 토산품, 기념품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과 음식점은 성곽 북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6> 1981-85년 관광업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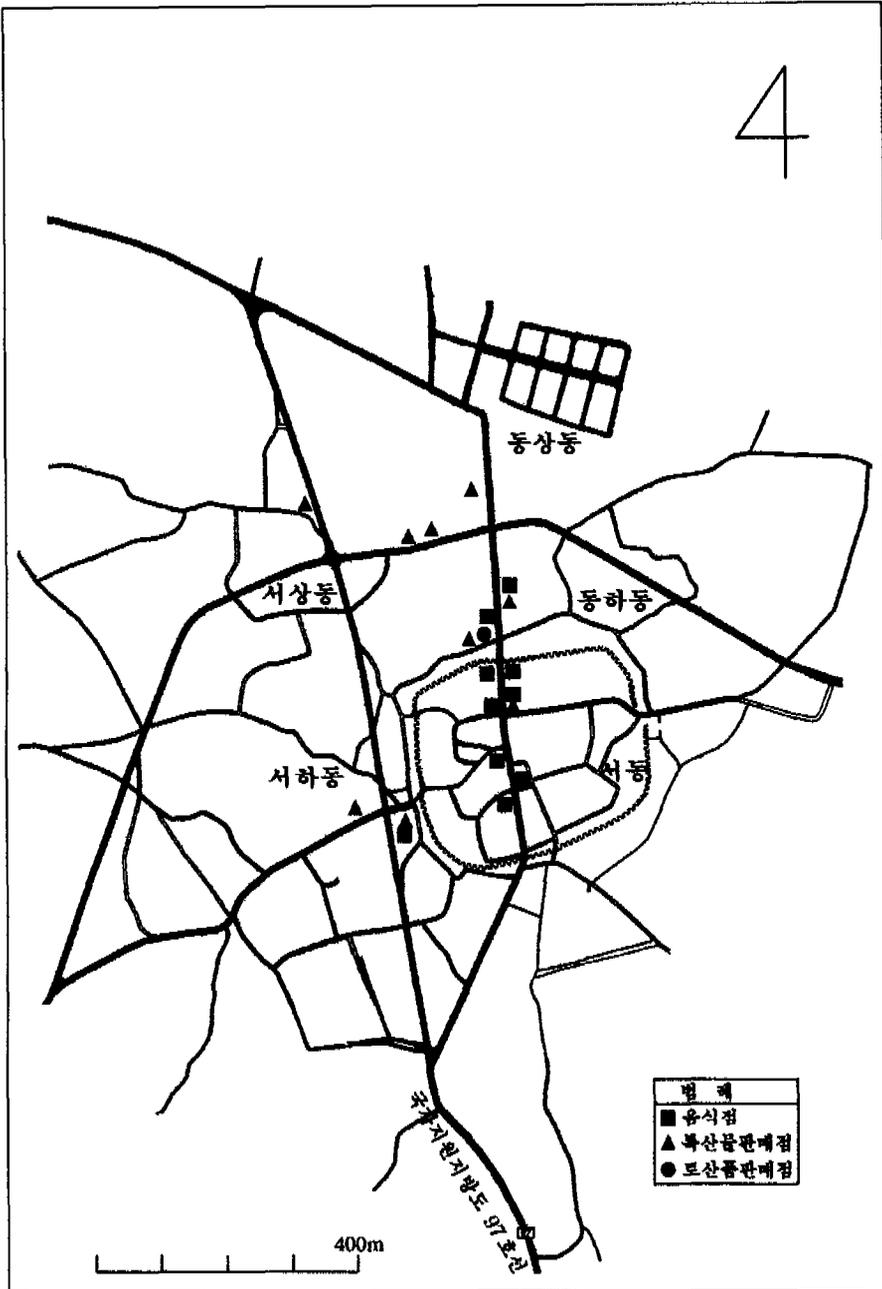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1983년에서 1984년에 걸쳐 제주와 표선 사이를 남북으로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이 성곽 서쪽으로 신설되었다.

1986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지역의 관광업소는 성곽내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97번 도로를 중심으로 '향토음식(메밀국수, 돼지불고기, 빈대떡, 좁쌀막걸리 등)'을 파는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성곽 서쪽 97번 도로변에 음식점과 특산물판매점이 들어서는 것을 <그림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1986-90년 관광업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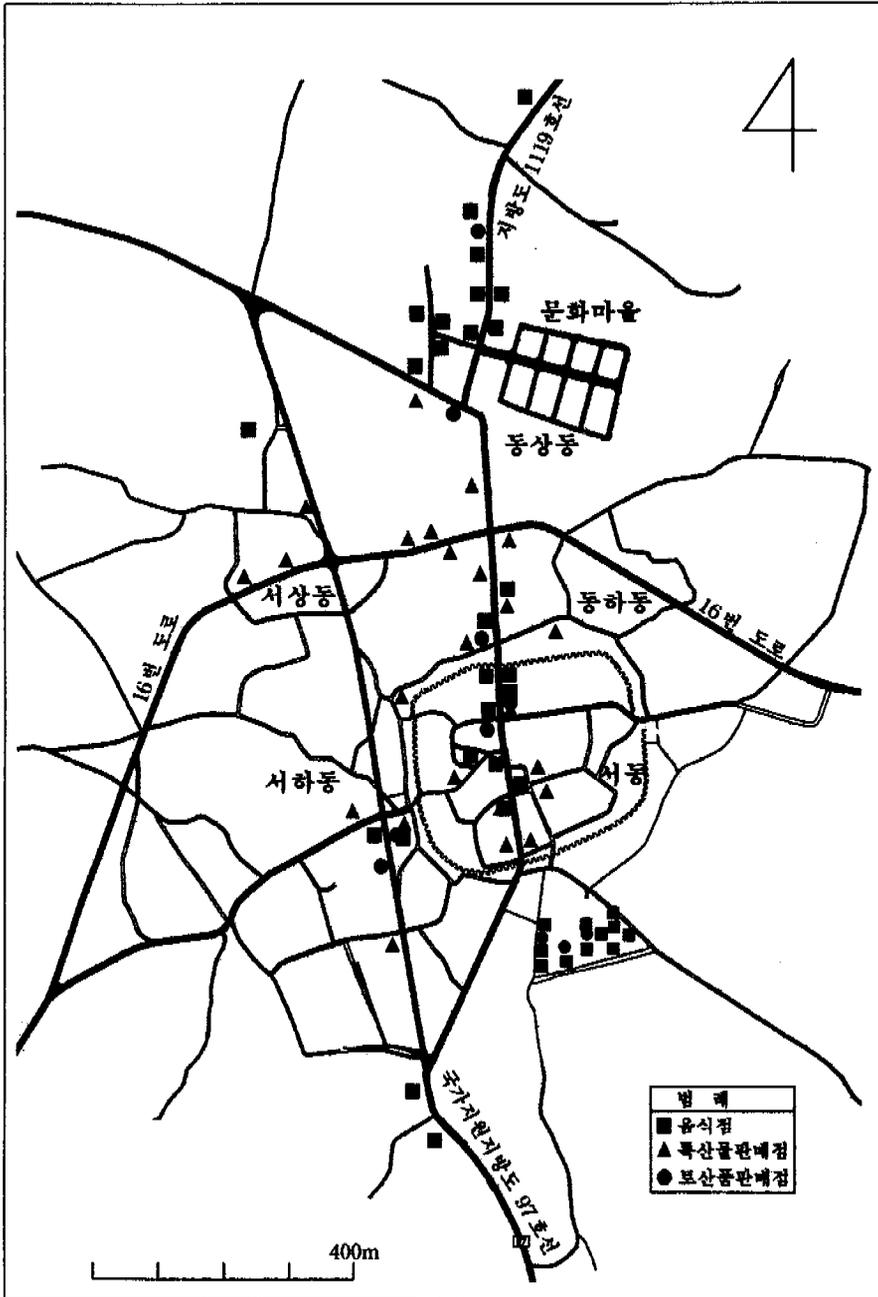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서귀포와 성산포를 연결하는 지방도 1119호 서성로가 1989년부터 1990년 2년 간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가시와 성읍을 잇는 16번 도로가 1990년에서 1993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상가가 1994년 남문외곽에 조성되었으며, 문화재 보전지역 밖에 있는 성읍리 북쪽 1119호 지방도 변에 농촌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성읍집단마을 조성사업이 1993년 말에서 1995년 말에 걸쳐 이루어졌다.

도로의 개통 및 포장과 함께 음식점, 토산품판매점이 들어서는데, 성곽 북쪽 97번 남북도로 및 16번 동서간 도로를 중심으로 특산품 판매점이 급격하게 들어서는 것을 <그림 18>에서 확인할 수 있고, 1994년에 조성된 남문외곽 상가와 성곽 북쪽 서성로가 지나는 문화마을 앞에 음식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8> 1991-95년 관광업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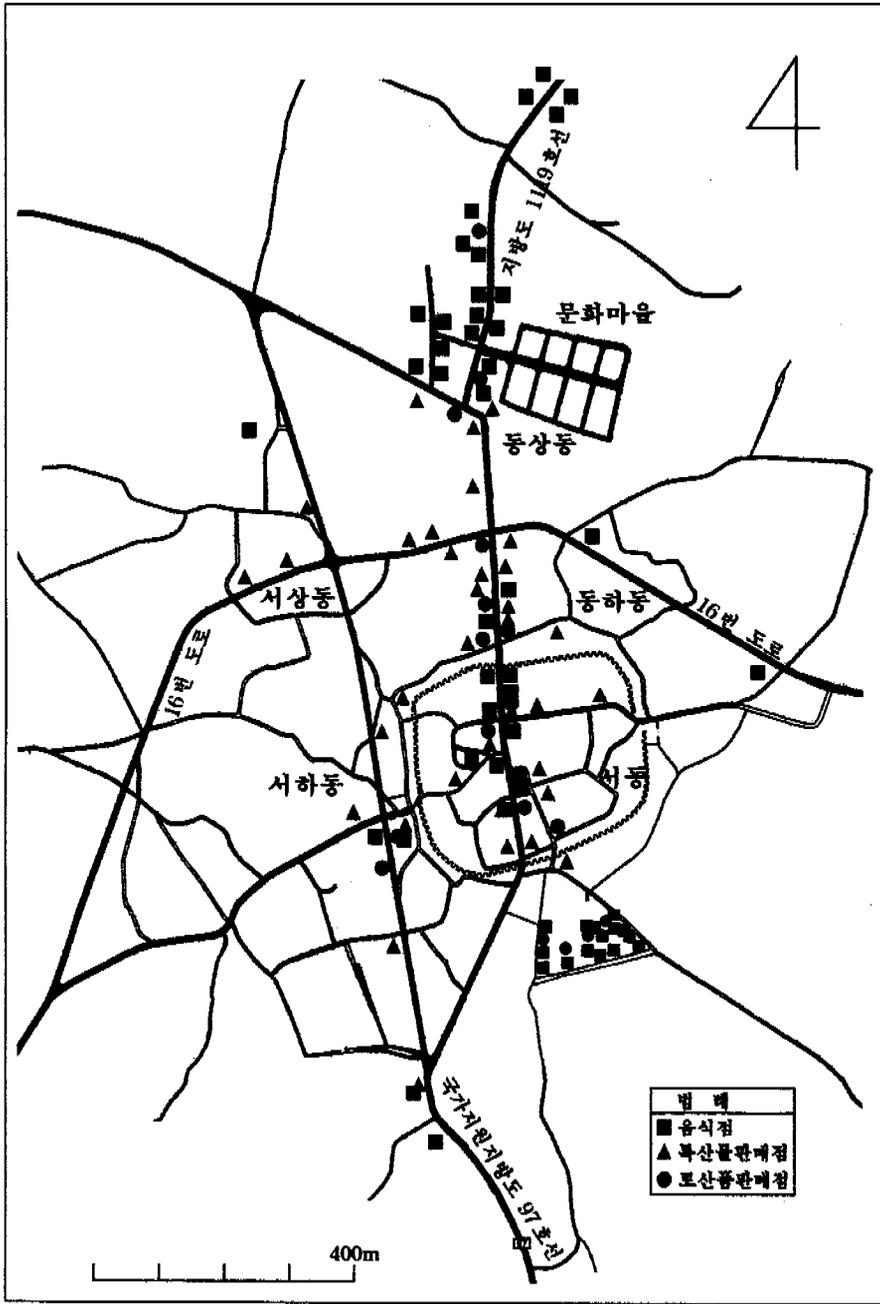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1996년 이후에는 음식점과 토산품 판매장 및 주차장에 따른 휴게실 등 관광 편의시설이 성곽 남쪽 동구 근처에 입지하면서 음식점 및 토산품 판매점이 집단 상가를 이루는 것을 <그림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지역의 관광관련업소는 2000년 4월 현재 음식점 64개소(성곽 안 10, 성곽 밖 54개소), 특산물(건강보조식품) 판매점 37개소(성곽 안 13, 성곽 밖 24), 토산품(기념품) 판매점 19개소(성곽 안 5, 성곽 밖 14)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관광 관련 업소들은 민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관광수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설규모나 메뉴의 다양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며, 종사원의 서비스 역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9> 2000년 4월 현재 관광업소 분포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2) 관광업소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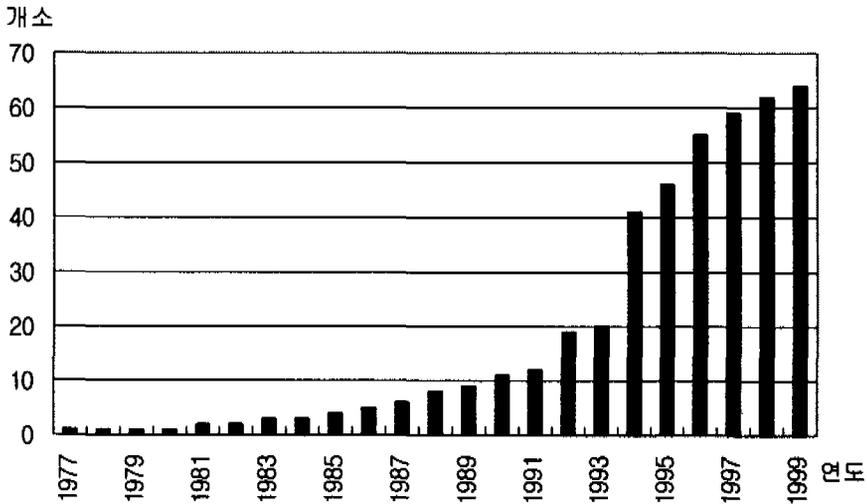
(1) 음식점

관광객의 관광지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동기 중에는 음식이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음식은 관광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관광동기의 주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성읍리에 있는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꿩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주로 취급하는데, 메뉴에 그 이름들이 토박이말로 적혀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2000년 4월말 현재 음식점이 64개소가 있는데 성곽 안에 10개소, 성곽 밖에 54개소가 있다

<그림 20>에서 본 지역의 음식점 등록업소 수는 90년대 이후에 들어와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지역의 식당업소 분포는 80년대를 거치면서 성곽 안쪽을 관통하는 97번 도로변을 따라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전반기에는 1994년에 조성된 성곽 남쪽 남문의곽상가와 1993년 말에서 95년 말에 조성된 마을 북쪽 문화마을 앞길을 지나는 지방도 1119호 서성로 변을 따라 음식점들이 급격히 들어섰다. 이후 90년대 후반기에도 남문상가와 북쪽 문화마을 서성로변에 꾸준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지역의 음식점에서는 돼지불고기, 빙떡, 꿩메밀국수, 꿩고기요리, 좁쌀오메기술, 빈대떡 등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있다. 하루 중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은 점심 시간을 전후로 (11시~1시 사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마을이 제주도 향토음식의 고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림 20> 음식점 증가추이



자료 :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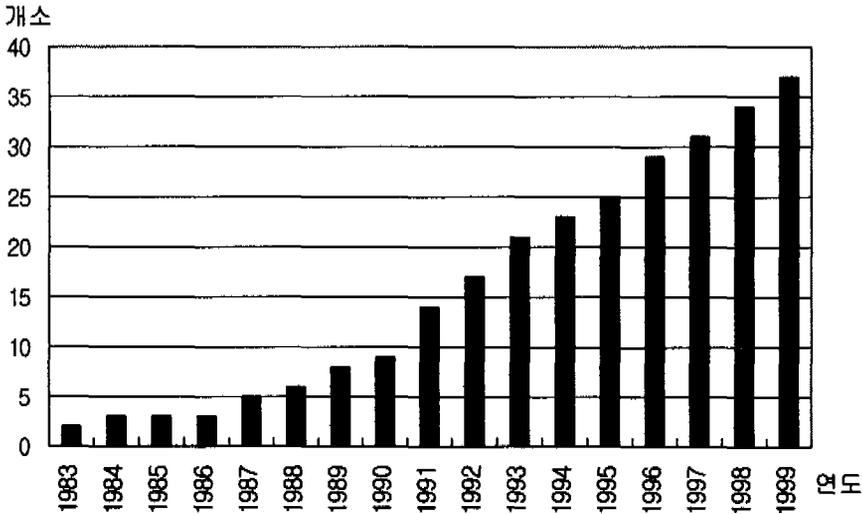
(2) 특산물 판매점

특산물이란 특정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 임산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또는 특정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를 소재로 하여 만든 특정 상품을 말한다.

본 지역에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특산물(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이 2000년 4월말 현재 37개소(성곽 안 13, 성곽 밖 24)가 있다. 본 지역의 특산물 판매점에서는 감귤, 표고버섯, 꿀, 오미자, 팥엿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한다. 80년대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특산물 판매점의 분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80년대 전반기에 성곽 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97번 도로변과 성곽북쪽을 동서로 지나는 16번 도로변에서 업소가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90년대 들어와 성곽 남쪽과 성곽 밖 표선과 제주를 연결하는 97번 도로 및 제2우회도로인 16번 도로변에 업소가 들어서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90년대 후반기에는 성곽 안을 남북으로

로 통과하는 97번 도로변에 신규업소의 뚜렷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특산물판매점 증가추이



자료 : 현지조사.

(3) 토산품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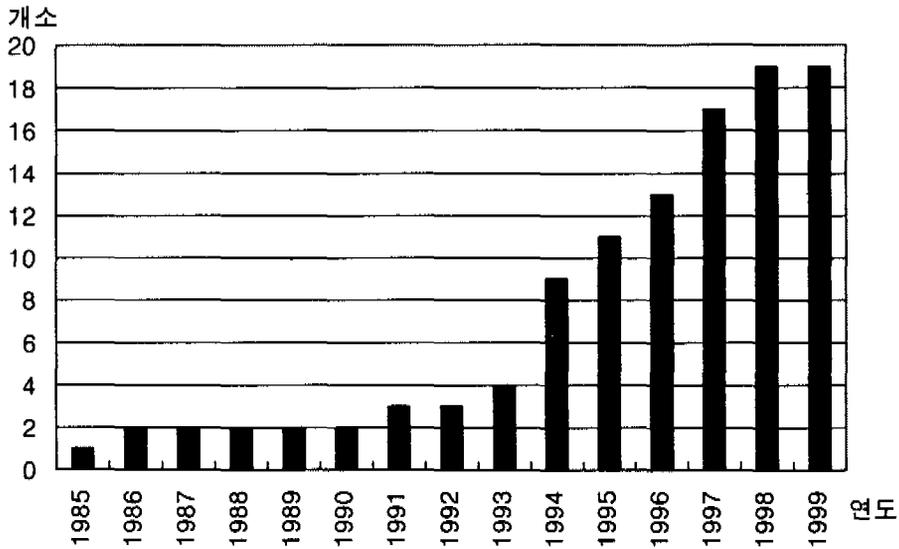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토산품은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며, 생산품목은 석각제품, 패각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는 돌하르방, 물허벅, 해녀상 등이 대표적이다.

본 지역의 토산품 판매점에서는 제주향수, 갈옷, 꿩엿, 돌하르방, 산호, 옥돔, 열쇠고리, 각종 기념품을 취급한다. 지역의 토산품 판매점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주와 표선을 연결하는 남북관통로 변에 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성곽 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97번 도로변을 따라 업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산품판매점의 증가추이는 다음 <그림 22>와 같다.

본 지역에는 토산품(기념품)판매점이 2000년 4월말 현재 19개소(성곽 안

5, 성곽 밖 14)가 있다.

<그림 22> 토산품판매점 증가추이



자료 : 현지조사.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기호에 알맞은 그 지방의 토산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는 그 지방의 토산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지역에서는 풍부한 현무암을 원료로 돌하르방, 해녀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각제품을 90년대 들어와 생산하고 있다.

지역 내 관광토산품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관광토산품 제조업체 현황(1998년 말)

업체명	주소(소재지)	생산품	등록일	비고
점인공예	성읍리 708	석각공예	1993. 1. 8	
석풍난향	성읍리 695-1	석각공예	1993. 1. 8	
신정공예사	성읍리 569	석각공예	1993. 1. 8	
대정석재공예사	성읍리 2947	석각공예	1993. 1. 8	
남광공예사	성읍리 2919	석각공예	1993. 1. 8	
창산석공예	성읍리 2946	석공예	1994. 5. 3	
민속마을공예단지	성읍리 418-5	석각, 목각공예	1997. 3.20	

자료 : 남제주군(1999), 「99주요행정편람」.

(4) 관광 승마장

제주 조랑말은 가축 중에서는 진돗개, 오골계에 이어 세 번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국산 토종의 제주도 조랑말은 개량마에 비해 몸집이 훨씬 작고 거친 모습을 하고 있으나 힘이 세고 날렵해서 승마감이 좋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조랑말을 탈 수 있는 승마장들이 동, 서부 산업도로를 끼고 중산간 지역의 목초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도내의 승마장은 2000년 4월 현재 21개소로 제주시권에 2개소, 서귀포시권에 2개소, 동부권에 13개소, 서부권에 4개소가 있다. 지역별로는 남제주군 10개소, 북제주군이 7개소,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이다. 승마장은 직접 즐길 수 있는 관광의 좋은 자원이 되고 있다. 성읍리의 승마장은 1988 성읍승마장이 개설된 이후 현재 6개의 승마장이 분포하고 있다.

<표 12> 제주도 승마장 현황(2000년 4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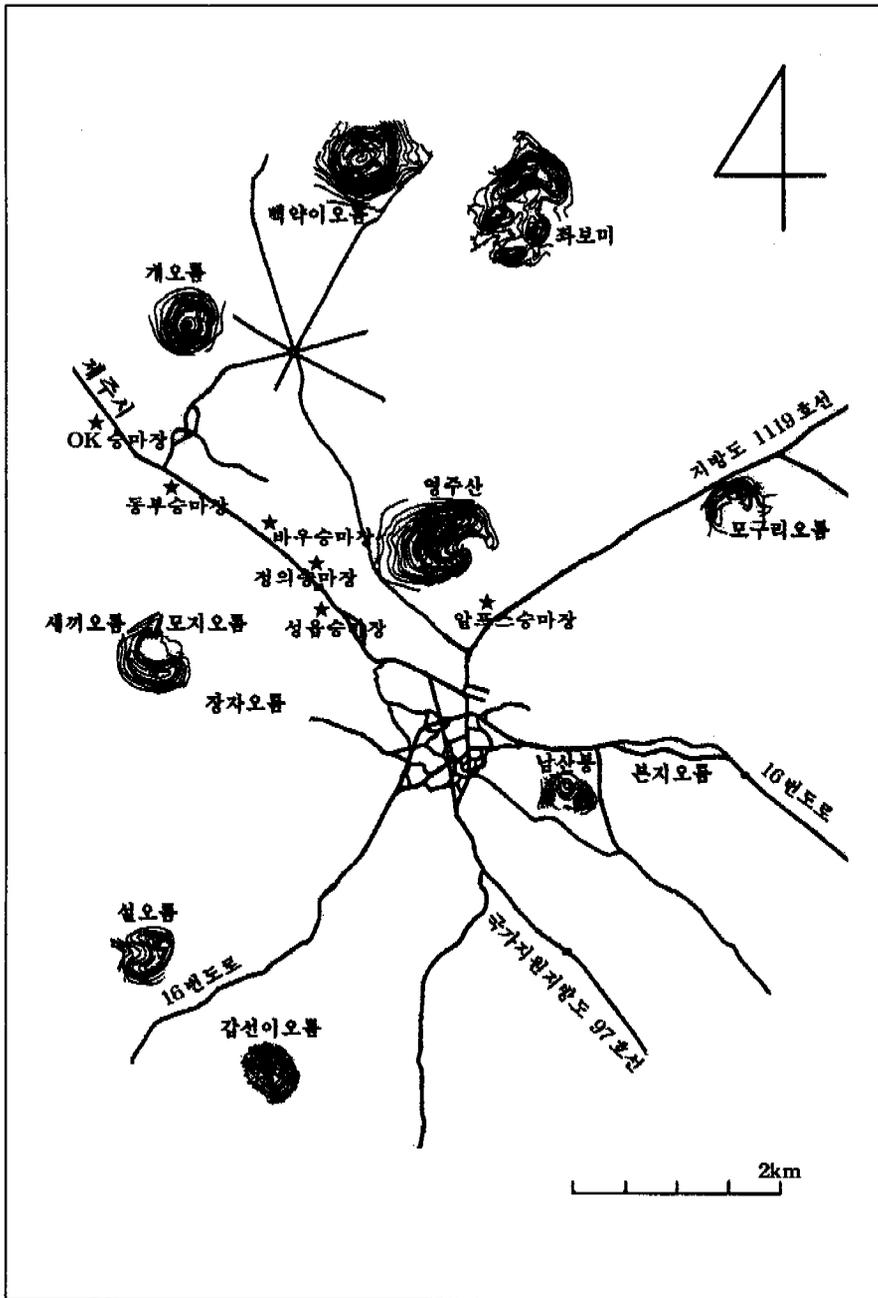
권역명	승마장명	소재지	비고
제주시권	어승생 명도암	제주시 노형동 제주시 봉개동	
서귀포시권	에덴 초원	서귀포시 대포동 서귀포시 상예동	
동부권	제주 탐라 서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송당 성불오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바우 정의 성읍 알프스 동부 오케이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이어도 명예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서부권	그린 남읍 한라 서광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표 13> 성읍리 관광 승마장 현황

승마장명	주소(소재지)	면적(ha)	시설물(평)				사육 두수	개설일자
			축사		관리사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부	성읍 2873	4.8	1	35	1	25	116	1992. 5. 1
바우	성읍 2669	4.1	1	33	2	20	77	1990.11.19
성읍	성읍 2045-1	5.1	1	51	2	103	85	1988.10. 4
알프스	성읍 475	5.4	1	48	3	38	52	1991. 1.11
오케이	성읍 3138	6.5	1	30	1	28	37	1997. 5. 9
정의	성읍 2422	5.3	1	29	1	28	36	1989.12.28
계	6개소	31.2	6	226	10	242	403	

자료 : 남제주군(1995), 주요행정편람 및 남제주군 산업경제과 축산(2000).

<그림 23> 승마장 분포



자료 :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V. 결론

성읍리는 성읍민속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 및 농업지역이다. 이곳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이 흐르며, 제주도 중산간 지역 가운데 비교적 물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 중의 하나이며, 작은 오름들에 의해 둘러싸인 분지로 비교적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

완만한 경사지와 겨울철의 탁월풍을 막아주는 제주도 최대의 기생화산군으로 분포된 지역이며 동계방목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목축이 성하였다. 또한 투수성이 큰 화산지형이며,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여 주변의 완만한 대지를 활용한 밭농사에 주력하였다. 이처럼 관광지화 이전의 성읍 주민의 주된 생계수단은 농사가 위주이면서 축산업을 겸하고 있어 반농반축(半農半畜)이거나 주농부축(主農副畜)이었다.

자급자족의 경제시대에 중산간지대는 산지와 해안의 이중적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영농할 수 있는 경지정리와 농경에 이용되는 가축을 방목할 수 있어 경제생활에 최적지였다. 삼읍(三邑)체제 설치 당시 정의현의 현청은 현재의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하였으나, 너무 동쪽에 치우쳐 행정의 중심지역으로서 백성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성읍리로 옮긴 것으로 본다. 또한 여러 마을들 가운데 성읍으로 현청 소재지가 옮겨진 데에는 성읍이 지나는 풍수 지리적 요소도 다분히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 구성면으로 본 특색은 관아가 집중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민가들이 모여 전체적인 읍취락을 이루며, 가옥의 밀도가 높은 집촌의 형태를 이룬다.

읍성은 성곽이라는 물리적 요소에 의해 정주지가 한정된다. 성읍리는 기존에 형성된 마을에다가 민속마을이라는 독특한 관광지로 형성된 곳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처에 수려한 자연적 관광자원이 산재하지만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문화적 대상은 빈약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은 서민의 생활기반인 민속문화를 비롯하여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풍부히 지니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관광자원은 집단화된 문화유적지이다. 유형의 문화유산으로는 이 지역 특유의 민가군을 비롯하여 향교, 일관헌, 돌하르방, 성터, 연자매, 옛 관청터, 옛 비석 등이 있으며 무형의 문화유산으로는 중산간 지대 특유의 민요, 민속놀이, 향토음식, 민간공예, 방언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교통로는 경관의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완성된 교통로 자체는 기존의 경제형태와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지역은 인구정체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각종 관광업소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업소의 분포는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곽 남쪽 남문의외곽에는 관광업소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성읍리의 주거지는 성곽 안의 중심지역에서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대체되고 있다. 성곽 밖의 우회도로가 관광교통도로로 이용되면서 외곽지역의 생활주거지마저 관광중심지역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승마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히 증가하였다. 목마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로 승마장이 활성화되고 고소득 산업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국민경제가 발전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관광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수요의 증가, 도시민의 관광심리증대로 인하여 앞으로 이 지역의 관광관련 업체로의 전환은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날 성읍리 주민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을 넘어 민속마을로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관광수입이나 상업이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등장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가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관광관련업소들은 성읍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관광수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설규모나 메뉴의 다양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예전의 관광유형은 단순히 보는 관광이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은 그 지역의 문화유산과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두루 살피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단체관광위주의 획일성보다는 가족단위나 개인관광 등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읍리의 현재의 모습은 완벽한 조선시대의 재현도 아니고, 현대식 시설도 아닌 중간적 위치에 놓여있다. 또한 관광객의 기호에 알맞은 지방의 특산물에 해당하는 상품의 개발생산도 미약한 실정이다.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된 주택의 외모는 너무 지나친 육지적 또는 도시적 요소로 인하여 이곳 민속마을의 분위기와는 어울리거나 조화되지 않아 외래 관광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전통마을의 분위기에 조화되면서 어울리는 건축양식과 다양한 토산품의 개발생산을 통하여 관광객들의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 장대현(1977), 「都市地理學」, 교학사.
- 姜錫午(1985), 「新韓國地理」, 大學敎材出版社.
- 今村鞆, “濟州島를 말한다,” 「20세기 前半의 濟州島」, 洪性穆 譯(1997),
우당도서관.
- 김광언(1998), 「민속놀이」, 대원사.
- 金炳文(1989), 「觀光地理學」, 螢雪出版社.
- 김영돈(1997), 「제주 성읍 마을」, 대원사.
- 金鍾垠·吉鎔鉉(1988), 「관광지리학」, 집문당.
- 金洪雲(1992), 「觀光韓國地理」, 형설출판사.
- 반영환(1995), 「한국의 성곽」, 대원사.
- 栢田一二, 「濟州島の 地理的研究<1930年代의 地理·人口·産業·出稼 狀況
等>」, 翻譯·出版 濟州市우당도서관(1995).
- 오성찬(1987), 「제주의 마을(古城里)」, 반석.
-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社.
- 오홍석(1982), 「聚落地理學」, 교학사.
- 李根(1990), 「觀光資源論」, 학문사.
-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1991),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耽羅文化叢
書(10) 濟州島部落誌(IV)」.
-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1991), “李元鎮 耽羅志,” 「耽羅文化叢書(9)」.
- 濟州市우당도서관(1999), 「濟州島の 경제」.
- 泉靖一(1966), 「濟州島」, 洪性穆 譯(1999), 우당도서관,
- 최창조(1990),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 한라산학술대탐사(2000), 「천미천」, 한라일보사.

<논문>

- 김영돈(1983), “旌義고을(1),” 「耽羅문화」,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85), “旌義고을(2),” 「耽羅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86), “旌義고을(3),” 「耽羅文化」,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87), “旌義고을(4),” 「耽羅文化」,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姜大玄(1966), “漢江氾濫原 聚落의 特質,” 「地理學」, 제2호, 大韓地理學會.
- 姜大玄(1976), “都市·村落 地理學,” 「地理學」, 제13호, 大韓地理學會.
- 강동진(1997),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金德鉉(1983),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 文化景觀,” 「地理學論叢」, 제10호, 서울대학교.
- 김혜숙·김행신(1991),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33집, 제주대학교.
- 김홍식(1984), “城邑里 空間構成의 研究,” 「濟州島研究」, 제1집, 濟州島研究會.
- 羅美英(1997), “濟州 城邑民俗마을의 立地와 空間構造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 南宮燧(1983), “동진강하구 간척촌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제10호, 서울대학교.
- 文柄會(1988), “滯留型 觀光地 開發-濟州地域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行政大學院.
- 문영철(1997), “한국 관광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3권 제2호.

- 朴鍾叙(1988), “韓國 寺下村의 構造와 變貌,” 「地理學叢」, 제16호, 慶熙大
學校.
- 朴賢淑(1992), “濟州民俗마을의 觀光現像,” 「濟州島研究」, 제9집, 濟州島
研究會, pp.129~180.
- 夫善子(1993), “主題公園으로서의 성읍민속마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실증
적 연구,”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經營大學院.
- 徐庚林(1978), “濟州 民俗의 觀光 資源化 方案-表善面 城邑里를 中心으로
-,” 「논문집」, 제10집, 제주대학.
- 송성대(1984), “觀光資源 分布性向에 의한 濟州道の 地域別 觀光性”, 제주
대학교 논문집, 제18집.
- 楊普景(1980), “반월면4리 동쪽부락에 대한 연구,” 「地理學論叢」, 제7호,
서울大學校.
- 吳洪哲(1969), “濟州島の 聚落立地에 關한 研究-變遷過程과 立地要因을 中
心으로-,” 「地理學」, 제4호, 大韓地理學會.
- 吳洪哲(1974), “濟州島の 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博士學位論文, 慶熙
大學校 大學院.
- 吳洪哲(1987), “제주도 聚落研究의 動向과 課題,” 「濟州島研究」, 제4집,
濟州島研究會.
- 柳濟憲(1979),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 「地理學論叢」, 제6호, 서울大學
校.
- 李光奎(1984),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社會學的 側面-,” 「耽羅文化」, 第
3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李琦錫(1968), “舊邑聚落에 關한 研究-京畿地方을 중심으로-,” 「地理學」,
제3권 제1호, 大韓地理學會.
- 李文鐘(1984), “同族村의 人口移動과 村落의 變貌,” 「地理學」, 제30호, 大
韓地理學會.
- 李惠源(1994), “濟州道の 聚落名에 關한 地理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花

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張保雄(1974), “濟州島 民家の 研究,” 「地理學」, 제10호, 大韓地理學會.

張保雄(1980), “韓國의 民家型 分布와 文化地域區分,” 「地理學」, 제22호,
大韓地理學會.

정경숙(1995), “관광자원으로서의 향토음식,” 「梨花地理叢書」, 6, 梨花女
子大學校.

鄭承仁(1993), “濟州道 觀光地域의 특성과 觀光行態에 關한 研究,” 碩士學
位論文,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鄭承鎰·秦錫泰(1989), “島嶼觀光地로서의 鬱陵島,” 「地理學叢」, 제17호,
慶熙大學校.

丁源一(1994), “慶州市 宿泊業의 空間的 類型과 開發,” 「地理學叢」, 제21·
22합번호, 慶熙大學校.

崔基燁(1986), “韓國村落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崔永俊(1983), “嶺南路의 景觀變化,” 「地理學」, 제28호, 大韓地理學會.

崔昌祚·朴英漢(1978),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陽氣風水를 中心으로-,”
「地理學」, 제17호, 大韓地理學會.

<기타 문헌>

공군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 7인(1996), 「이런디 알았수과」, 공군제
8546부대.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1995), 「(下川里 郷土誌) 넷기」.

南濟州郡(1992), 「南濟州의 文化遺蹟」.

남제주군(1992), 「표선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서」.

남제주군(1994), 「城邑民俗마을 綜合整備計劃」.

남제주군(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남제주군실시계획」.

남제주군(1994), 「표선지구 집단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남제주군(1995), 「마을발전계획」.
- 남제주군(1995), 「우리 固有地名 由來集」.
- 남제주군(1995), 「旌義縣 客舍址」.
- 남제주군(1996), 「남제주군 固有地名」.
- 남제주군(2000), 「새천년을 맞아 이제 성읍민속마을이 변하고 있습니다!」.
- 文化財管理局(1997), 「'95年度 文化財 修理報告書(下卷)」.
- 제주기상대(1993), 「제주도 기후 요약」.
- 제주도(1980), 「城邑民俗마을 保存 및 育成基本計劃」.
- 제주도(1985),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 (제1권 觀光開發計劃)」, 제주도.
- 제주도(1995), 「濟州語辭典」.
- 제주도(1996), 「濟州의 防禦遺跡」, 제주도.
- 제주도(1998), 「濟州의 文化財(增補版)」, 제주도.
- 濟州道文化公報擔當官室 편(1985), 「濟州道 傳說誌」, 濟州道.
- 제주도문화공보담당관실(1982), 「제주도의 문화유산」, 제주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읍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17권)」.
- 南濟州郡, 南濟州郡 統計年報(1966, 1969, 1973, 1974, 1975,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제민일보, “제주·정의·대정 삼분화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이야기 제주역사),” 2000년 1월 31일.

Summary

Spatial Change of Eup-Sung Settlement designated as tourist site, Sungeup-ri, Cheju

Kim Yeong-Cheol

Department of geography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Sung-Dae

Sungeup-ri is the historical place as the seat of town office, Chung-eu hyun for about five hundred years. And it has the Cheju-eup castle,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inheritances of Cheju-do, the traditional style of people's houses, and other numerous cultural assets and intangible folklore. In this regard, Sungeup-ri is an important place for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locational background--why the town office moved to the inland Sungeup-ri from previous coastal area, and the spatial structure and economic basis before the designation as a folk village. Second, we

present the tourism resources and their distribution. Third, we investigate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spatial structure with respect to tourism-related business establishments and their change after designated as a folk village.

To the above matters, this research first reviews the bibliography about Sungeup-ri. Second, the research analyzes collected maps and records. Third, the research distinguishes the present spacial structure of the village by surveying the village and the spatial structure and interviewing the villagers.

Sungeup-ri is a farming as well as a tourism area including Sungeup folk village as its background. With Chunmi-chun, the longest stream in Cheju-do, Sungeup-ri is one of the regions which can get waters easily, and has wide basin surrounded by low hills good for farming. With the gentle slope and the largest parasitic cones in Cheju-do which protect the village from the prevailing wind in winter, and with the possible grazing in winter, the villagers had been engaged in stock raising and farming before being designated as a folk village.

In the self-sufficient economy, the intermediate region between seashore and mountains had a dual economy, and it was the most productive region with farmland and pasture used for raising livestock that could be used for farming. When three towns were organized in Cheju-do, the town office of Chung-eu hyun was first established in Kosung-ri, Sungsan-eup. But the town office was located too far east on the whole, and so it was moved to Sungeup-ri. And topographic elements also worked when Sungeup-ri was decided as the seat of town office.

The peculiar spatial structure of the village is the concentration of

town office buildings and common houses around them. The high density of the houses forms an agglomerated settlement. Sungeup-ri forms a peculiar sightseeing place with an established village. Cheju-do has several natural sight-seeing places, but has few cultural assets that meet the tourists' attraction. However, this village is abundant in folk culture,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inheritance.

These days the chief economic foundation of the villagers is commerce which deals with tourists and agriculture. Tourist shops are mostly restaurants and local produce shops located along the main street which runs through the center of the village from south to north and outside the south gate of the castle wall. Tourist shops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shops is mainly spreading north and south and outside the castle wall. Tourist Horse-riding sites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late 1980s. The tourist stores contribute to the visitors' needs and the increase of the villagers' income, but the scale of the facilities, the variety of the restaurant menu, and the environment are lagging behind.

Present sight of Sungeup-ri is neither the complete revival of Chosun Dynasty nor the modern facilities. And it is also insufficient to develop and produce the principal products of the province that catch the tourists' fancy. By the Settlement Reformation Project, the features of the houses in culture village are out of harmony with the traditional housing, and so tourists feel strange. A more comprehensive plan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by developing new style of building which is in harmony with the traditional style and producing variety of principal products which meet the tourists' attention.